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金鶴香油

社說 在北支不正業者問題

一

國內에 잇서서나 國外에 잇서서나를 莫論하고 官憲의 눈을 속히어 不正한 營業을 일삼는다는 것은 本來 올코준 일이 어니겟지만은 國內보담도 國外에 잇서서는 全國民의 名譽에 關係되는 바이 큼으로써 더구나 容恕치 못할 일이다. 設使 不正한 營業을 가저 一攫千金이 可能하다고 하더라도 全國民의 名譽를 爲하야 敢히 行치 못할 노릇이어든 하물며 그 實地에 들어 가서는 一攫千金도 반드시 容易한 것은 아니요 오직 全國民의 名譽만을 더럽히는데여다. 그러데 그동안 天津, 北京을 爲始하야 北支一帶에 散在한 朝鮮人 不正業者의 數가 얼마엿드냐고 무르면 자그마치 一萬 五千名이나 되얏섯다고 한다. 지금 그들은 北支의 治安이 漸次로 確立되고 警察의 取締가 嚴重하야짐에 따라서 그 不正業이나마도 하지못하게 되지라 全部各地로 流離丐乞하야 돌아다니는터로 現地當局의 커다란 頭痛거리를 이루고 잇는 形便이다. 勿論 그들의 所行으로보아 오늘의 環境은 自作自孼으로서 同情할餘地가 업다. 아니, 將來를 警醒시키기 爲해서는 그들의그와가튼 果報가 맛당하다고도보인다.

二

그러나 다시 도리켜 생각한즉 大槪 그들中의 多大數는 國內에 잇서서 無恒産코 無恒心한 者로서 一攫千金을 꿈꾸어 北支로 나갓다가 드디어 그와 가튼 不正業에 轉落된 것이나 아니엇슬까. 그러치 안코 能히 相當한 資金이 잇서서 正當한 營業에 從事할만한 다음에야 그들도 사람이어니 何特 그러한 不正業을 질기어 取하엿슬 까닭이 잇슨가. 그러므로 그들을 그대로 坐視하기 보담은 차라리 恒産을 세우고 恒心을 기르게 하야 人間으로서 更生시키지 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一萬五千名이나 되는 그 만흔 人命을 죽건 살건 居然히 坐視한다는것은 人情에 어그러지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現地當局에서 朝鮮으로나마 도로 送還시키겟다고 通牒을 하는 것이겟지만은 朝鮮으로 送還된다고 해서 갑작이 生活의 安定을 엇게될것은아니즉 游離丐乞하야 다니기는매일반이다. 그럼으로 그들을 朝鮮으로 送還하겟다는 現地當局의 主張은 오즉 現地本位의 問題解決에 不適하는것이매 그들本位의 問題解決과는 自然히 그 距離가 멀어저 잇는것이다.

三

問題는 朝鮮으로 送還하느냐 안느냐에 잇지 안코 그들을 어떠케 救濟하느냐에 잇다. 하면 그들의 生活이 安定되는 곳에서 그들도 녯 生活을 고치고 새로운 貢獻을 차저 도리어 北支開發의 重要한 任務를 遂行하게 될른지도 모르는 일이다 事實로 그들의 生活을 救濟한다면 새로히 開發되야 가고잇는 北支一帶가 朝鮮內 보담도 더 救濟에 有利치 안 할까. 그들을 朝鮮內로 끄러 드려다가는 장차 어떠케 救濟할 것인가. 勿論 現地當局에 向하야는 이러한 要求를 할 것이 못 되지만은 總督府當局만은 이點을 考慮하야 주기 期한다。萬一 大局的으로 서로 交涉하야 나가량이면 現地當局者들도 반드시 우리의 見地를 諒解치 못 할 것은 아니리라고 推測한다。

海軍航空襲部隊 中南支各要地空爆

太湖西方敵完全掃蕩

【上海六日發同盟】艦隊報道部六日午前十一時發表 海軍航空隊는 昨五日 左의諸地點을 爆破하엿다

一、鈴木少佐가 指揮하는各部隊는 午後二時半頃 宜昌飛行場(湖北省)을 爆擊하야 地上待機中의 大型一機를 爆破하고 또建物一棟을 燒燬케하야 飛行場에 多大한 損害를주엇다

二、森永大尉가 引率하는部隊는 正午頃 岡始飛行場(河南省)을 爆擊하야 飛行場에 多大한損害를주엇다

三、福建省 漳州飛行場을 攻擊한 部隊는 格納庫 及飛行場附屬建物을 爆破하야 飛行場에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四、廣東市北方粵漢鐵道西村驛에 集中한 貨車群百數十輛을 爆破하고 그外 機關車 及貨車數十輛도 爆破한後 倉庫及線路數個所에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五、廈門附近에서 敵砲臺를 爆破하야 相當한 損害를 주엇다 如斯히 廣汎한 空襲에對하야 敵機의 對抗해오는것이 업서 帝國海軍航空隊는 正確한 爆擊을하고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東京電話同盟】六日午後二時大本營陸軍部發表

一、太湖西側에 通入한敵에 對하야 三月中旬부터 開始한掃蕩戰은 險難한 山地帶에서 實施되엿는데 我軍은 到處에서 敵의 抵抗을 排除하면서 包圍戰을 進捗시켜 마침내敵을 三州山系 中央部로 壓縮하야 여에 徹底的打擊을 與하엿다

二、這間에 抗戰한回數는 三十餘回, 抗戰한 敵兵力은 約三萬에達하는데 其遺棄死體만도 七千에 達한다 我軍의損害는 戰死傷合計四百이다

安澤占領

【北京六日發同盟】四日午後伊藤部隊는 八十三師에 屬하는約五百의敵을 擊破하고 安澤(洪同東方四十粁)을占領한後 繼續하야 同十師에 屬하는敵六百을 擊破하엿다 敵은 死體百五十以上을 남기고敗走하엿다

台兒莊附近을猛攻、敵軍大部隊動搖

徐州大殲滅戰漸次迫到

【北京六日發同盟】徐州北方約六里線에 猛進을開始한 我山東作戰部隊는 附近의敵을 殲滅하고잇는데 台兒莊은 人口一萬의小都市에 不過하나 水陸交通의要地일뿐아니라 隴海線方面의 要衝으로 敵은 同方面에서 頑强히 抵抗하고 市內各戶에는 아직 敗殘兵이 蟠居하여잇스므로 目下 掃蕩戰이 繼續되고잇다 我〇〇部隊는 八日夕刻黃林莊(台兒莊東南一粁의線)運河東岸에 達하고 또 〇〇部隊는 五日台兒莊附近에서 頑强히 抵抗하는敵에게 猛攻을 加하야 이를掃蕩하고 다시 郁莊 (台兒莊東方二里半) 南方으로 敵一個師가 增援하여왓스므로 我軍은 目下 이에對하야 攻擊 前進하는中이다 徐州後方戰線인 隴海線方面에잇서 敵軍은 關麟徵、孫連仲兩軍及 四川軍을 合한約十個師로 漸次我軍의 猛攻에 大打擊을밧고 敵은 動搖하기始作하야 近近 行할 徐州大會戰에서 殲滅을 豫想케한다

隴海線方面敵軍 北上軍을阻止

【蚌埠六日發同盟】情報에依하면 萬福集(懷遠西方十七里)에約二萬餘의 軍團이 駐屯하고 또河溜集 (懷遠西方十二里)雙口集 (懷遠西方十一里)等에約一萬五千의 敵이 集結하야잇는데 모두三十一軍及百三十一師에 屬한것으로 我北上軍의 北進을阻止、陣地强化에 努力하고잇다한다 그리고 徐州守備總指揮 李宗仁은 秘密히徐州로부터 萬福集에 南下하엿다고傳한다

神佛站占領

【濟南六日發同盟】支那軍正規兵을 交한一團의匪賊이 泰安西北方 神佛站(肥城北方一〇粁)에 蟠居하야 蠢動하고 잇든바 我〇〇部隊는 五日討伐하야 完全히 이를擊破하고 同站을占領하엿다

鈴木、鯉登部隊

依然猛進擊繼續

【龍山師團發表】鈴木部隊는 지난三十日以來 滿縣北方地區의 殘敵을 討伐하든中 逐次敵을 壓迫하야 再三戰鬪後 三十一日夕 臨縣을 占領하고 다시 北上하야 二日午後石樓를 攻略한다음 轉進하야 西方黃河에 敵을 追擊前進하야 三日午後永和東方地區에서 四、五千의 敵을 擊破하고 永和에 進入하엿다 그리고 交戰한 敵軍은 中央軍, 山西軍, 共產軍의 一部로 今回의 戰鬪에 잇서 敵의 遺棄死體는 一千五百을 不降하고 我軍은 거이 損害가업다 그리고 鈴木部隊에 協力한 我飛行隊는 永和西方黃河渡河點에서 退却하는敵을 爆擊하야 敵의 溺死者多數를 내이고 鯉登、江口兩部隊는 지난二日부터 洪洞東方安澤縣一帶의 敵을 討伐하는中인데 到處에서 殘敵을 攻擊하고 東北方沁源方向으로攻擊前進하는中이다

健康週間定하고 保健衛生을宣傳

【東京電話同盟】厚生省에서는非常時局에 對處하야 銃後國防의 萬全을 期하고 國民의 健康增進 體位를 向上시켜 人的資源의 充實을 圖하기爲하야 來五月十七日부터 二十三日까지 一週間을 國民精神總動員健康週間으로 保健衛生의 全般에 亘하야 有効適切한 宣傳을 實施하기爲하야 이를 定例次官會議에 附議하야 各省과 連絡하야 官民一致의 實施運動을 促進하기로 되엿는데

一、智識向上과 保健生活의 實踐躬行

一、傳染病의豫防

을 二大眼目으로 實施方法으로 第一은 一般的運動項目을 포스터-팜프레트-週報及 島嶼週報等에依하야周知케하는外에 中央地方의 各種團體의 協力에依하야 目的을 達成케하는 同時에 共同週間中은 라디오를 通하야 全國의 保健衛生에關한 講演及演藝放送을 行하야 其効果를 期하기로되엿다

蘇聯電話事業費 比昨年度約倍增

【莫斯科五日發同盟】蘇聯電話從業員大會는 目下莫斯科에서 開催中인데 五日同大會에서 一九三八年度 主要事業計畫이 發表되엿다 右計畫은 外國과의 連絡國內設備改善 그他에四億八千五百萬留를 計上한것인데 一九三七年度의 二億八千萬留에比하야 約一、七倍의 激增이다 右計畫中 가장注目되는것은 莫斯科와哈巴諾夫스크間 九千五百粁의 直通電話線을來十一月末에 開通豫定이다

廣州利川安城振威等 四郡實狀을視察

南總督視察第二日

京畿道管內農村巡視 第二日의 南總督一行은 六日午前八時四十分廣州郡 九川面 九川公立小學校를 訪問한것을 爲始하야 廣州、利川、安城、振威四郡의 實狀을 視察하고 各郡廳에서 訓示를與하엿는데 沿道의 視察로서는九川小學校、廣州郡實村面의 道種羊場、利川郡內 砂防工事、栗峴更生指導部落、同滿溪面山嶺排水路工事及 長湖院堤防、安城郡六谷面의兩本農場等을 詳細視察하고 各關係者로부터 說明을 聽取하고 第二日의 日程全코-스百六十粁에 亘하는 視察을 終了한後 平澤驛에서 列車에 便乘 午後七時三十分 京城驛着歸任하엿다

×

纛島로부터 漢江廣津橋를渡하야 約十分만에 九川公立小學校에 到着하엿다 아마敎育實施以來最初로 同制度의 創始者總督을마지하는 光榮을浴하게된것이 이 小學校로 同校의 感激은 永久不滅의 榮譽이다 當日은 마치 愛國日로 全校兒童 四百八十名이 校庭에 整列하야 我等의總督南大將을 歡迎하엿다 校長崔文實氏가 明快한 國語로 狀況을 報告하야 『우리七人의 職員은 粉骨碎身하야써 全兒童을眞正한 皇國臣民이 되게할 確信을 가지고잇다』고 其熱意잇는 語調는 半島의 敎育을 背負한 靑年敎育家를 잘代表하엿다 校舍裏庭에는 養豚、養鷄、養蠶、桑園等副業實習의 實績을 總督眼前에 披露하야 讚嘆이엇섯다『各兒童의 家庭에는 養鷄를 하게하야 每國日에는 鷄卵一個式을 가지고 와其代金을 貯金한다』고하야 鷄卵이 麥酒箱에 가득 담겨잇다 절로敎育家들의 號令一下 全兒童의 齊唱에는 隨行한 人士도 童心으로 도라와 感激하는以上으로 이러한指導訓練이 周到한 朝鮮人兒童들에게 歡迎햇는 總督의 心情이 充分推察된다

×

『나와함께 皇國臣民의誓詞(其一)를合唱하자』고 壇上에올라 先總督의面上에는 大滿悅의빛이 現顯된다 그리고總督은

一、잘先生의敎訓을지켜工夫하라

二、집에도라가면 父母의 敎訓을 직혀孝行하라

三、서로 싸와서는 안된다

四、兄弟、友人과의 조케지나라

五、거짓말해서는 絶對로안된다

고敎訓하엿다

×

利川邑으로부터 西南約二粁의地點에 栗峴이라는 十九戶의部落이잇다 이部落은 팔머크의『大地』보담도 나은更生을 말한다 改良 元佳節에는 總督府로부터 地方改良 補助交付를 받은만큼 十數年의 忍苦鍛鍊의 歷史의活模範을 示하고잇다

어야기는 멀리 高麗時代에서 始作되여 鄭、金兩姓이 世居하야 相當히 裕福한 生活을 繼續하엿스나 漸次 文弱에 흘러 部落은 安逸의꿈은 形跡도 업시 消되고말엇다 部落民은 自暴自棄하야 離散하엿다 昭和七年 農村振興運動의 警鐘이全鮮에 울리자 敢然 이에呼應하야 어려난 절문農村戰士는 同部落의 鄭機鉉君이엇다 血과汗으로 모든犧牲을 忍耐하야 部落民을 指導하야 모든障害와缺乏을 克服하고 村勢를 逐次挽回하야 昭和十一年에는 自願하야 更生計畫實施部落을 設定하고 文字그대로獻身的 努力을 다하야 更生의光輝가 바야흐로 同部落一面에 橫溢하야 畓五二八反、田一三九反 林野四八五反에 達한 平和로운 農村의 感을與한다

×

共同浴場、井戶、洗濯場、倉庫로부터 年租五斗를 出하야 만든理髮所까지 完備하여잇다

×

이部落을 訪問한 南總督은 部落更生의 아버지 鄭機鉉氏에게 여러가지 質問을 發하는同時에 激勵하고 自身으미를 쥐고常綠樹를 심엇다 그리고 同部落에 對한 利川警察署의 努力도 極히 懇切히 讚揚하엿다고한다 여기에는 官民一致 內鮮一體 忍苦鍛鍊을 顯現하고 國體明徵도 徹底하게되고잇다

×

砂防工事가 完成되여 週林을 보게된 廣州郡을通하야 利川郡에入하자 全鮮에 有名한禿山의連峰이 沿道兩側에 聳立하야 砂防工事施工地와 未施工地가 너무나 判然하엿다 利川郡滿溪面의山嶺一帶의 畓은 洪水에 流失되엿다 土砂에 埋沒되여 慘狀을 呈하엿다 其救濟를 爲하야 一部에는 山嶺排水工事를施行中인데 京畿道內에서 어排水工事로는 個所는 實로 九十萬米、七十二萬圓의經費를必要한다

×

其他時히 總督의 視察中 一行의關心을끈것은

一、廣州郡實村面의 種羊場

一、長湖院堤防及 滿溪川을끼고緊事中인 長湖院及 對岸忠北陰城과의 市場問題

一、安城郡元谷面 奇耳里의 本農場

等일것이다

佛財政全權案으로 下院의議論沸騰

首相、獨裁制를大膽하게叫號

各派政府案에反對表明

【巴里五日發同盟】佛國下院本會議는 五日午後 異常한 緊張裡에 블룸內閣의 財政全權法案을 上程하엿다 劈頭에 財政報告委員長 슈잇는民主로부터 委員會의 審議經過를 報告하니 中央派 左翼의 二席으로부터 뻘리도 反對의소리가이러나 議場은 極히 喧騷한中에 블룸首相이 登壇하야 不得已財政全權委任案을 提出하게된 事情을 左와가티 說明하엿다

目下 佛國의經濟難局을 打開함에는 外國爲替의 取引을佛國銀行에서 統一하고 더以上 資本의 輸出을取締하는外에 他途가업다 資本主義制度의 通貨의不足은 絶對로 이國家의金融準備擁護와 兩立하지 안는다 大槪佛國貨의 擁護는結局 金의國外流出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我等은 世界에 向하야 民主主義國이 獨裁制度를 考案한 若干의 好例를 取하기에 忌憚할것이잇는냐

고 大膽히 叫號하자 블룸政府의 獨裁制度模倣論을 各派가 다 攻擊하고 財政全權 委任法案에 反對를 表明하엿다 (寫眞은 블룸首相)

佛財政全權委任案 上院通過도至難

블룸內閣總辭職危機

【巴里五日發同盟】佛國下院은블룸內閣이 提出한財政全權法案을 組上에노코 白熱的討議를 하고잇는데 政界에서는 同案이 設令下院을 通過하드래도 急進社會黨議員의 壓倒的多數를 占領하고잇는上院을 通過하기는 困難하다고하야 同案의 否決을覺悟로 블룸內閣總辭職의 觀測이 有力하게되엿다

共產分子活動 天津當局嚴取締

【北京六日發同盟】最近天津佛國租界에서 盛히 共產黨의 宣傳及排日刊物多數를 發行하야 市內各學校、工場等에 配布한者가잇스므로 關係當局에서는嚴重히 그根據에 對하야 搜査를 繼續하고잇든바 右는共產黨員高醒亞로 朱德의 命을바더 지난三月二十四日秘密히 天津共產黨在津代表로 抗日工作에 當하야 前記와 如히 暗躍한것이 判明되여 軍當局에서는 其根絶을 期하기爲하야 徹底的取締를 進行하고잇다

防共護國團幹部 六日夕刻收容

【東京電話同盟】지난二月十七日 民政兩黨本部를 占據한 防共護國團의幹部 中溝多摩吉氏等은東京地方裁判所檢事局廣重檢事의取調를 밧고잇드니 六日夕刻中溝氏外統制委員長橫田秀隆(三九)總務委員靑木保三(三七) 會計委員神山三郞([illegible]) 小川二郞([illegible]) 同秋島榮吉([illegible]) 小島幸藏([illegible])等七氏는暴力行爲 不法居住侵入嫌疑로 豫審判事의 令狀으로 起訴前의强制處分에附케되여 七日東京拘置所에收容되게되엿다 그리고 當日參考人으로 出頭한 民政黨代議士 古島義英氏는 午後三時東京地方檢事局에出頭 事件當日 團員으로부터 同氏를 指名하야 面會를 求하엿든 事情에對하야 取調를밧고 同八時歸宅을許하엿다

西人民戰線派 新內閣組織

네그리首相은留任

【바르세로나五日發同盟】西班牙人民戰線內閣首相 호안·네그린氏는 滔滅에瀕한 人民戰線重再建을爲하야 五日아사니아 大統領의委囑을바더 擧國一致內閣組織에着手하엿는데 人民戰線各派의支持를어더 五日深更 新內閣組閣에成功하엿다 新內閣에는 네그린首相이留任하고 新外相에는 國聯代表로 活躍한 바요氏가 就任하엿는데 社會黨의 前國防相 프리에트氏는 新內閣에入閣치안헛다

六全大會通過한 重要諸案件

劃期的重大改革

【上海五日發同盟】國民黨全國代表大會의 提案은非常時局을 反映하야 百數十件의 多數에達하엿는데 其大會를通過하야 決議된것으로

一、國民參政機關設置

二、抗戰時期綱領의 決定

三、國民黨黨章의修正及黨務改正等이다 其他軍備、經濟、敎育等重要問題로 黨章修正에依하야國民黨總裁制로 改正된것은 黨成立以來 劃期的重大變革으로 國民政府의今後動向을 卜하는것으로注目된다

國民參政會는 諮問機關에不過

國民黨의專制强化策

【香港四日發同盟】國民黨六全大會에서 設置하기로 決定한國民參政會는 그構成權限內容 如何는左右兩勢力消長의 "빠로메-터-"로되어 注目되고 잇섯는데 四日에 이르러 左와가티 判明되엿다 卽同會構成員으로 各省에서 代表三名을 選任하고 爲先一般投票에 依하야 候補六名을選出하고 그中에서 政府가 三名을選定하는것인데 그權限에 對하여는 非常한 激論이잇서 一部左翼은 同參政會에 近代民主主義國의 議會와 同樣으로 宣戰媾和를 決定하는 大權을賦與할것을 主張하엿스나 結局 右派의主張대로 同會는 政府의指導下에잇는 諮問機關으로하기로하고 同會에 和戰을決定하는 大權을 與함에依하야 國民黨一黨專制에 制約을 加하려고 猛運動을한共產黨의 作戰은 마침내 水泡로 도라가고 民意暢達의 카프라주下에 一黨專制强化를 企圖한 國民黨右翼의 作戰이 奏効한것으로 解釋된다

新黨을待望해도

一切作爲的運動은排除할方針

政府現狀대로邁進乎

【東京電話同盟】事變發生後의政局은近衛內閣을 中心으로 一旦 擧國一致의 體制를 取하고잇스나 政府의背景으로 國民的基礎라고할政黨이 存在하지아니하므로 去第七十三議會以來 國家總動員法案 電力國策法案의 審議經過에보는것과가티 政府로서는 重要諸政策의 遂行에 多大한支障을 생기게한結果 所謂新黨結成이急速히 各方面으로强하히要望되게되엿다 이傾向은 政黨方面에도 敏活히反映하야 國民同盟 昭和會系等의 第一議員俱樂部를 中心으로하는 政府支持의 新黨運動이 벌서부터 이러나 最近 民政兩黨內部의不平分子 或은革新分子에依한 橫斷的運動 (常盤會)과 宮田光雄氏(政友)一派의所謂 挺身隊運動等이 政黨內部로부터 이러나 新黨樹立을要求하는 空氣가 漸次濃厚하게되엿다 이에對하야 民政黨幹部와 政友會의現狀維持派等은 互相提携하야 이下에서 이러나는 現狀打破運動의機先을 制御하고 이를萌芽부터 摘去하는同時에 할수잇스면 政民主流의 連繫에依하야 政黨外의 新黨組織을 排斥하고 萬一新黨結成의 必要가잇는 境遇에는 政民連繫에 依하야 또는 一步를 나아가政民合同에 依한 新看板下에 現狀打破運動을 妨害하려고하고잇다 이動向은 議會中에도 보엿스므로 六日의町田民政黨總裁의 政民兩派幹部招待會는 매우注目된다 卽이會合은表面 議會慰勞의形式을 取하고 따라서 何等結論에는 到達치못하엿는지모르나 結局 政民連繫에 拍車를 加한것으로 생각된다

如何間 前述과如히 政黨幹部의 自己轉身이라든가 不平分子의時局便乘이라든가 旣成政黨의 看板으로 박구어단다든가 政黨人의新黨運動임에 不過하다 近衛首相出馬說과 如한것은 너무도 政黨者流의 잇자이보이는 術策이라하야 政府側에서는 이를 冷靜視하고 時局을 擔當하는中心이될 新政黨出現을 이러한 政黨下에 잇서서는 斷然코 結成할수업고 적어도 新局面에 對應할新黨은 即 時代에適合한 革新的 諸政策을 걸고 政綱을國民에게 明示하야 大衆的基礎上에서는것이아니면안된다는 見解를 堅持하고잇다 따라 政府로서는 假令新黨의 急速한出現이 待望되고잇다하지라도 一切의 人爲的作爲的 新黨運動을 排除하고 眞實로 時局協力의 精神으로 貫通된 新政黨擡頭가 잇기까지는 時局의 推移를注視하면서 現狀대로 時局擔當에 邁進할 決意를갓고잇는 模樣이다

外務省異動

【東京電話同盟】外務省은 上海에잇서서 複雜微妙한 國際關係에 鑑하야 大使館의情報 事務에 當케 하기 爲하야 特히 外務情報部第一課長田代重德氏를 起用하기로되여 六日左와如히 發令하엿다

大使館一等書記官 山本熊一
任外務省書記官(三等) 命調査部第五課長

外務書記官兼大使館一等書記官 田代重德
任大使館一等書記官(三等) 命中華民國(上海)在勤

外務省調査部第五課長 井口貞夫
命情報部第一課長

스칸디나비아諸國 外相會議開催

【오슬로五日發同盟】丁抹、瑞典、芬蘭、諾威의 四個國은 來十五日오슬로에서 外相會議를 開會하기로되엿다 同會議는 스칸디나비아諸國의 中立問題及 戰時에잇서 經濟協力이 討議될터인데 會議는 約二週間繼續될터이다

夕刊後市況 六日

◆正米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三三・三	三三・五
釜山		三三・三〇	三三・六九
群山		―	三三・七七
木浦		―	三三・六
下關		―	三四・八八
名古		―	三四・六

	當限	先限
◆大阪 人絹 後引◆	七四〇〇	七七一〇
◆福井 人絹 後引◆	―	七七一〇
◆橫濱 生糸 後引◆	六八二〇〇	六九三〇〇

單一個年으로 中學全科目卒業

國民中學講義

今回의入學者에게는特히아름다운記念메달(上의寫眞)을爲始하야金보당辭典等을빠짐업시進呈합니다

大至急 葉書로內容見本을 請求해서 보기바람니다

이世上에는 어떠한職業에 就하드래도 中學校卒業程度의知識이업스면 成功을바랄수는업다 가령軍人이된다거나 會社、銀行、工場 或은商店에드러간다해도 小學校卒業만의 學力으로는 到底히 他人에게뒤저서 充分한活動을할수업다 家庭形便으로 上級學校에갈수업서 煩悶하는사람들은 今日부터라도 日本一의 定評잇는 國民中學講義에드러가 斷然成功의第一步를 드듸기바란다。學校萬能時代는 어미지냇다 사람은일하면서 배워야眞正한敎育이될수잇다 그리고 現今獨學出身者가 每年學校卒業者를 壓倒하고잇다 오즉지 實力時代로되엿다 어떤山間僻地에서라도 中學校以上으로 完備된本講座에 就하야 배우면 일하면서 僅少한費用으로短時日에 完全히 中學卒業의學力을 어들수잇다 그리고 今回의入學者에게는 左와如한大附錄의特典도

比類업는大附錄進呈

게다가學費는一月一圓

1 書法敎典(中等習字手本楷書)
2 新撰國語讀本
3 新撰漢文讀本
4 最新英習字帳
5 靑年立身法
6 書法敎典(中等習字手本行・草書)
7 獨習自習法
8 ペン字上達法
9 高等英習字帳
10 獨學受驗法
11 國民英語讀本
12 中學全科中辭典

趣味와實益의獨學雜誌『近代靑年』每月進呈

內容見本進呈

◎ 葉書로 左記로 申込하면 詳細한見本을 無代로 보내드립니다 ◎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三一番地 國民中等敎育會 振替口座東京五八〇五八番

어떠한職業에도 『英語』獲得이先決!!

올림픽大會萬國博까지不過二年 商戰最後의勝者는語學의所有者 그리고 業務의餘暇에容易히 習得할수잇는것이라면안배우는게원통합니다 世間에有名한井上十吉先生執筆한레코-드付 井上英語講義錄」(月謝一圓廿錢、三個月進級)으로배우면自宅에서 完全히立身의武器『英語』를體得할수잇습니다

英語講義見本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면即時見本을呈합니다 (申込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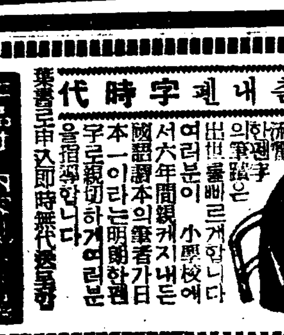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二〇二八八番

日本ペン習字 肉筆本位 通信敎授

文部省囑託國語讀本筆者 井上千圓先生 責任御指導

會費月壹圓 六個月卒業 目下特典有

마음내는펜習字時代



流麗한習字의筆蹟은出世를빠르게합니다 여러분이小學校에서六年間親하게지내든 國語讀本의筆者가日本一이라는明朗한 字로親切하게 여러분을指導합니다

葉書로申込하면即時無代進呈

作品付・內容見本進呈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ノ六 日本ペン習字研究會 振替東京四一八五三番

物價高의現狀에對處 勞賃合理化를考慮

自身의生活節制와 품싹抑鬱도申飭

總督府當局서 銳意研究中

勞働市場의 動搖防止次

시설이 물려들어 금년은 일속
부터 각지의 공사장에서 로동
자의 수요가 부쩍 늘어 로동
시장은 근일에와서 상당히 활
기를 띄우고잇다 사업지대로는
총독부 사업만으로도 한만(滿
鐵)과 하천(河川)개수사업이며또
지방도청의 토목사업등 거이전
조선적으로 사업이 널려잇고 그
외에중요한 공사로는 철도관계
의 중앙선(中央線)공사, 경부, 경
의 량철도선의 복선공사며 함
경도 평안도 특히 압록강방면
등 토목과건축 사업만으로도 로
동자의 수요는 극히만타 그런
데 금년은 전보다 모든물가가
모두오른관계로 로동임금도 당
연히 올라야 할것이나 공사장
의 사정으로 본다면 언제나대
부분의 청부업자의 배회가 그
러치가타 로동자의 임금을 텩
연시 혐하게만 하려는 까닭에
자칫하면 로동시장에 동요가생
길념려도잇서 미리부터 당국에
서는 모든사업의 원만한 진행
을 위하야 로동자의 임금 기
라 대우관계에 대하야 주의를
하고잇다 최근 로동시장의 입
금을 내무국 토목과와 사회과
에서 알아 보건대 지방에 따
라 여러가지로 다르나 대체로
임금이 다소나흔곳은 로동자의
부족을 느끼는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경방면으로 함경북도가
제일비싼것이 일원내지 일원이
십전가량이고 그다음이 평북국
경이 일원가량이고 그이하로대
개 칠팔십전가량, 그리고 다시
더적은곳으로든 함경남도 원산

조 선의 개발 오산 업교 동등 일반

(元山)을 중심으로한 해안선방
면과 경상남도일부가 약간떠떠
러진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일
이 바쁜때가아님으로 그만하다
고하나 아프로 오륙월경에 들
어가 일러가모두 바쁜때이면 대
개평균잡고 구십전에서 일원으
로 흑은일원이십전가량되리라고
보고잇다 그러나 문제 되는것
은 공사장에서 『함바』라고하
는 밥집(飯場) 제도를 보건
대 작년은 하루평균 사십전이
내를 표준으로하고 로동임금은
하로에 그 이배도하라고 사회
과에서 지시한바 잇섯스나 실
제에잇서서 밥집은 대개 하로
사십전 이상으로 올라가 사십
삼사전 흑은 사십오전한곳도잇
슨터인데 금년여러가지 사정으
로부아 밥집의 요금이 하로에
사십오전에서 오십전은 될상십
다는것이다 만일 오십전만된다
면 로동임금은 적어도 일원은
되여야 할터이나 그러타고해도
금년은 다른일반물가가 오르든
게로 하로임금이 밥집요금의배
만으로한다면 노동자의 생활이
극히 어려우리라하야 여러가지
로 고려되고잇다 즉당배갑시오
르고 성냥갑시오르고 옷갑기타
일용잡화에 식료품도 다오랏스
니 밥집요금만을 표준으로 노동
임금을 표준세우기도 힘들게된
모양이다 그래서 사회과당국으
로서도 밥집요금을 적당히하도
록하는동시에 노동자들의 생활
도극히 절약하고 도차게하도록
하는동시에 노동임금 정도와그
지불방법등에 대하야 각별히주
의하도록 만히연구중에잇다

北支蘆台集團農園에 年三百萬圓을補助

外務省과總督府에서

【北京六日發同盟】당지에서는조
선자본 북지(北支)진출의 첫시
험으로 기동지구(冀東地區)로대
(芦台)에다 자본금 백만원을드
려서 일대 집단농장(集團農場)
을 경영하기로 작정하고 삼월
삼십일일부로 기동(冀東)측의인
가를어더 토지매수도 끗낫스므
로 근간 판게(灌漑)기타의 모
든설비에 착수하기로되엿다 그
런데 이농장은 현재, 북영철로
(北寧鐵路)연선을 위시해서 하북
성(河北省)각지에산재하는 조선
농민의거이전수인즉일천호(戶)오
천명을 수용할수 잇슬만한것인
데 명년춘경기(春耕期)부터는
주로 벼농사에 종사시킬 예정
으로잇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
다

一、자본금은 백만원 그전액을 동척(東拓)이 출자함

一、삼월삼십일일 기동정부(冀東政府)에서 토지매수 보조금으로 십만원의 보조를바듬 (소화십삼년도) 삼천오백 정보를 오십만원으로 벌써 매수를완료

一、외무성과 총독부로부터 매년 삼백만원의 보조를바듬

一、수용(收容)농민은 조선인으로하고 일천호 오천명을 수용할예정인데 장래론 현재포화(飽和)상태에 도달해 잇는 하북성(河北省)각처농촌에 거주하고 잇는 조선농민의 전부를 수용할예산이다

一、농사는 조선농민의 농작기술을 살리는 의미에서 벼농사를 주로하고 약간의 면화(棉花)농사 기타를 짓게할터이다 그리고 북지(北支)에잇는 농민이외의 조선인 약오천명에 대해서도 금후로 북지에 진출할 조선인에대해서도 그러할터이지만 각각 동척기타의 출자로 공업방면에다 포괄(包括)보호하게될터이다

垂楊에도春意

산협이아니나까 그런지 버들가지에 피
꼬리만치안혓스되 버들개아지 몰이올라
수양버들이 푸른빗츨 먹음고 느러저서
바람에 하누거리는것이 이로부터 장안
의봄이 눈에보히도록 닷터가는모양이다

人格本位로"嚴選"

自動車事故絶滅의根本策으로 道當局、運轉手試驗에嚴格主義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는교통
사고그중에서도 가장빈번한자동
차에 의한이명상(人命傷)의 가장중요
한 원인으로운전수의 기술부족、
직무태만, 인격저열(人格低劣)에
잇다하야 법서부터 이에대한적
절한 대책을 강구중이던 경기
도 보안과에서는 윤화(輪禍)예
방의 근본대책으로서는 운전수
의 기술과 인격의 질적향상을
꾀하는것이 위선초미의 급무라
하야 이제부터는 운전수자격시
험에 단호한 엄선주의(嚴選主
義)를 채용하리라한다。이때문
에 매월초마다 한번식보게되는
자동차운전수시험이 이전보담훨
신 엄격해질것은 당연하며 예상
되는바이여서 방금시행중에 잇
는 시험에 엇서서도 엄선에엄
선을 더하야 오륙백명이나되는
응모자속에서 불과십이삼명내
외밧게는 합격되지못하리라한다

延專財團 理事改選

부내연희전문학교에서는 얼마전 그학교재단이사를 개선한결과 다

都市對抗蹴球戰

蹴球戰史上初記錄 十二都市가馳參

優勝의榮冠은어느都市에 戰雲은八道에漲溢

스포ー츠조선의 획기적쾌사인
제일회전조선 도시대항축구대회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
는 본사주최와 조선축구협회후
원아래 오는십오일부터 삼일간
훈련원두 경성운동장에서 거행
하기로되엿다 어도시대항축구전
에대한 각계의성원파지지는 열
광적이여서 전조선에산재한 가
장우수한 팀만으로 다음파가튼
열두도시 그나마 각도의 대표가
용약참가 하기로되엿는바 신청
기가 지남후에 신청한 도시는
규정상어찌할수업서 부득이 참
가를 거절하엿슴을 널리량해를
비는바이다
축구(蹴球)가 어떡에 수입된
지 사십여년의 역사를 더듬어
나려오는동안에 수만흔 축구대
회가 열리엇스나 학생층제외한
사회인으로조직된 팀으로 더욱
어 각도를대표한 츤에들만이 여
거티 출전한것은 질(質)로나량
(量)에잇서서 처음보는일이지라
명실상부한 전조선대회로서 반
도축구사상에 찬연한 기록을남
길것으로 기대된다 참가팀의대
진(對陣)은 오는 십이일에 열
리는 동대회 역원회 석상에서
주첨결정하야 본보십삼일부 조
간에 발표하기로되엿다

出場都市 【申込順】

大 邱(慶尙北道)
咸 興(咸鏡南道)
鎭南浦(平安南道)
京 城(京畿道)
淸 津(咸鏡北道)
新義州(平安北道)
釜 山(慶尙南道)
平 壤(平安南道)
安 岳(黃海道)
鐵 原(江原道)
光 州(全羅南道)
廣 州(京畿道)
以上十二都市代表

囚人假釋放手續

審査規程을새로制定

從來順調로進行못되는데鑑해

형무소에서 복역(服役)중의수
형자석방사(囚人假釋放審査)에
대하야는 종래에 특별한 규정
이 업섯스나 금년일월부터 실시
된행형누진처우규칙(行刑累進處
遇規則)에준거하야 종래에 순
조로진행되지못하고 유야무야한
상태에 잇든가석방의 수속운용
을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아래에
총독부 에서는 요지음 수형자
(受刑者)의 가석방심사규정(假
釋放審査規程)을 새로히 제정
하야 칠일부 관보로써 발포하
기로되엿다

投身自殺未遂

충남서산(瑞山)에 본적을두고 현재시내
리태원정(梨泰院町)일백구십삼번
지 리상룡(李相龍)방에잇는 남
춘원(南春元)(三七)은 오일 오후
여섯시삼십분경에 제사고사기관
총소대(第四高射機關銃小隊)공
소(所)압 한강에 투신자살을
도모한것을 동공소 소원 전중
문랑(田中文郞)씨가 발견하고곳
물속으로 뛰여들어가 구원하야
롱산서로 넘기여 왓다는데 원
인은 일체말하지안허 알수업스
나 리면에는 상당히 복잡한사
정이 잇는것으로 보인다고한다

歡樂場中心으로 刑事隊갈팡질팡

白晝漢銀窓口盜難事件後聞

기보ー오일오전열한시오십분
쯤 부내남대문통(南大門通)사정
목 한성은행(漢城銀行)남대문지
점 수입계(受入係)창구안에 노
혼 현금 구백팔십여원을 도난
당한 사건은 소관본정서의 맹
렬한수사도 아무효과업시 륙일
밤까지 범인체포에 이르지못하
엿는데 동서에서는 현재다음과
가튼방법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잇는중이라고한다 즉 도난당한
것은 예금하려든 사람 김유제
(金潤濟)가 전기현금외에 대전
(大田)서 발행한 소위체(小爲
替)구 천칠백십이전과 강원도춘천
(春川)서온 식산은행(殖銀)소절
수십오원 청목당(靑木堂)에서바
든 조선은행(朝鮮銀行)소절수
구십이원 십이전등 현금파함하
야 일천백원이엿섯다는데 범인
이 전기두은행에나타나지도 모
름으로 은행에 수배를 마치고
일방대전우편국에조회하야 소위
체 번호를 조사하고잇다
그리고 은행편게는 주간에한
하는것이므로 륙일밤에는 형사
대가 총동원되여 부내각요리점
파『카페ー』『빠ー』등을 뒤지
고잇다한다
그런데 어떤사건은 김유제의
주의가 부족한점도 엇지만 은
행측에서 수위(守衛)를 두지안
흔것이 범행하는자에게는 조흔
기회엿섯다한다 또한 김유제는
다녀간 동은행과 거래가잇섯드
니만치 수입계원파도 얼굴을잘
알고잇서서 철창안에잇는돈을
인여 집어가는것을 몰랏다는것
은 은행측의 주의가 부족하다
고할것수밧게업다한다 그리고 김
윤제는 은행측에서 도난에대한
책임을 지지안는경우 소송을이
르켜서라도 자기의돈은 찻고야
말겟다고말한다

銀 갑시떠러진다

米國과墨西哥와의軋轢통에 이땅에도물결이미처

구금(九金)이상의 금을자유로
살수업서짐에따라 일시귀금속부
로부터 축출을 당하엿든 은(銀)
이 다시일반에게 애용되게됨파
동시에 귀중품으로 재 등장하야
시중의 은부치매매가 왕성하여
지는 이때에 미국과『메시코』
두나라의 정책충돌관게로 세계
의 은갑시 돌연히 떠러저서 태
평양을 사이에둔 조선에서도 요
사이 은한돈중에 일전식이 떠
러젓다 이와가티 세계적으로은
시세가 떠러지게된원인은 지난
삼월이십칠일『메시코』정부의 유전(油田)
이『메시코』정부의 『아메리카』재무성
정책에 대응하야 사월일일부터
종래사드리든『메시코』산 은을
사드리지 안켓다고 성명한데말
미아든것으로 조선에도 그영향
이 파급되여 지난사일부터 도
매가격 한돈중에 십우전하든것
이 십칠전으로 일전식 내리게
되것이다 아직도 시중소매상에
서는 한돈중에 파는때는 이십
이전식 사는때는 십칠전식처서
매매하고잇스나 당분간은 갑시
다시 회복될가망이 하박한점으
로보아 소매상에서도 불원간세
계적추세에따라 약간 소매갑슬
내릴것으로보인다

國境警備機一機

平北警察部로輸送中 六日午前汝矣島에一時着陸

평북도경찰부의 국경경비용비
행기『빠ー치크랍트』제육호비행
기는필서부터 동경비행기 제작
소(東京飛行機製作所)에서 제작
중이든바 요지음 완성되엿스므
로 평북도 경찰부에서조종사、기
관사등인 산전(山田)경부와 승전
(勝田)경부보 십전(汁田)부장
이 동경에 건너가서 전기비행
기를 공중수송키로하고 사일아
침예시반 동경우전(羽田)비행장
을떠나서 명고옥(名古屋) 복강
(福岡)등지를거처 육일오전 열
시반에 태도세(太刀洗)비행장
을 출발하야 오후한시반 경성여
의도(汝矣島)비행장에 내리엿다
총독부 경무국수뢰부와 신문
기자단등 다수의 마중으로 간
단한환영연회가 끗난뒤 등전비
행사의 조종으로 시험비행을하
약다 동비행기는 서속산백〃키
로〃탑재량 육백이십키로그람인
데 서인동의〃스마ー트〃한것으
로 려오나마 무장설비를 완전히
할수잇게 되여잇고 빗갑은 검
후률것이 당국스리와다마명식(命
名式)으로확정후 신의주(新義州)
에도라가서 활터이다 어르써국
경경비 비행대는 일층충실하
게되엿다 (사진은 경비기)

우재씨가 피선되엿다
▲아메리카 ▲모리스 ▲스나이더 ▲…▲안더ー슨▲…▲
辛鳳祚

應召者家族

極力保護援助를通牒

總督府에서各道知事에게

내지(內地)에서는 임시농촌부채
처리법(臨時農村負債處理法)과가
튼 사변(事變)관게의법안이 의
회를 통과하엿고 그외에도 널
리각방면에서 응소자(應召者)의
가족에 대한 보호원조에 만전
을 기하고잇는터이지만 조선에
서도 도소선으로서의 특수사정
도 잇느니만큼 이것에준(準)할만
한 조처(措置)를 어떠케 할까
하는데 대해서 방금당국에서 연구
중이든바 위선이번에 아래와가튼
세가지조목(條目)을각도지사에게
통첩하는동시에 그취지의 철저
를 기하기로 되엿다。즉

一、가업(家業)의 원조는 경영주는 물론 고용인이응소(應召)된경우라 할지라도경영상 지장이 생긴경우에는 부락진흥회원(部落振興會員)청년단원 부인회원들의 린보상조(隣保相助)로근로봉사(勤勞奉仕)를한층더 적극적으로 동원시킬뿐만아니라 농회、산업、금융、어업등 각조합과 긴밀한연락을 취하야 친절주도(周到)한 원조를 주도록할것

二、응소、전사、전상때문에 가업을 경영해나가기가 어려우므로 전업(轉業)또는 내지로 떠나가게되며 그경지(耕地)가옥、어선(漁船)기타 자산을 지급히 처리할 필요가 생겨진 경우에는 그처리보관등에 대해서 전기재단체또는 기업자(企業者)가 될수잇는데까지편의를 도모해주도록 할것

三、가계(家計)가 어렵기는 하나 자발적으로 군사부조(軍事扶助)를 신청치안는경우엔 부단의 주의로써 이에대한보호원조에 유감업기를 기할것

등이다

立敎連勝

二十二對零으로 普專을壓倒코

朝鮮럭비ー蹴球協會主催의 立
敎大學럭비ー部招聘戰 第二日의
對全普專戰은 六日午後五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根本(主審)韓龍
寶、水原(線審)二氏審判아래 全
普專蹴킥어프로 開始된바 前
半 立敎FW線의 銳意的攻擊
에 普專은防禦에만 汲汲하드니
十九分에中央『루ー
스』로부터 普專陣頭를 肉迫하
엿스나 모두『드롭아웃』된後普
專陣內二十五碼線에서만 混戰을
演하드니 同二十九分에 立敎FW
根本君이 左側트라이를 先取하야
優勢를 보이자 普專도 이에뒤지
안코 三十二分에 TB白五鉉君의
單身『두리블』로 突擊하엿스나
後援업서서 앗깝게도 得點의好機
를노치다음 前半戰을 一分을남
기고二十四分에 또다시TB川上君
의右側트라이와 FB伊藤君의골
킥으로 一擧五點을어더 八對零
으로『스코어』는 버러지게 前
半戰을 마치고 後半戰에 드러
가普專選手들의 意氣에 불타면
서開戰되자 TB鄭性海君은 約
三十米나 單身突入하야 右側트
라이를 보기조케『맑크』하엿스
나反則으로 동줄이루지못하엿다
練習不足의 普專이漸次疲勢를뵈
함에 立敎得勢하야 三分、二十四
分、二十五分에 連續的으로得點
하니 結局二十二對零으로 立敎
軍이勝利하엿다(계임時間七十分)
(寫眞은普專對立敎럭비ー戰光景)

立敎 22 { 14－0 / 8－0 } 0 全普專

【立敎大選手】 FW 秋原田 好倉本 鹽久山崎上本內井 小中横 二階堂 HB 武中 川上 TB 山 FB 伊藤

【全普專】 FW 換鍋山… HB … TB … FB 金

規則違反自動車 二十六件을摘發

본정경찰서에서는 육일오전열시
부터 동두시까지 황금정(黃金
町)일대와 경성역 서소문(西小
門)사이에서 자동차의 속력조사
를하엿는데 무면허(無免許)운전
이한건 규정속력초과가 이십오
건이나잇섯다 이상의 교통규칙
위반자는 근일전부호출하야
엄벌할방침이라고한다

총딱

안오르는 물까가업
더니 책갑시 도오
른다고▲옛날보려빈
한한 선비란 말이잇
기는하지만이래저래
선비의 가난은 면
치못할모양인가▲은
행에 돈맷기려가서
철마창구멍에까지 돈옵너헛다든
게 숨개미 훼이헷다 ▲그러고
말썽이 은행에서 돈맛는 철망
창구멍안에돈을 넉선다거니 창
구멍바기잇섯다거니하고승강이벌
러섯다 ▲창구멍안이나 바기나
가 구백팔십여원 도단의책임을
누가지느냐의 문제가잇는모양인
데▲그시비까지는 보지안코말할
수업서도 시비가생길집으로 미루
어보아 도난마즌 곳자리가 은
행권도판게아니엇다는것은 틀림
업다▲그러고보니 은행측주장은
은행권도안에서 마즌도난이라고
모두책임지는것은 아니란것은
못지안허도알일▲아마이런시비가
『법률적책임』을 밝히다는것이지

曆

▲四月七日(木曜)陰三月七日
▲干支 己巳
▲日出 六時十二分
▲日入 十九時一分
▲日南中 十二時三十五分五十五秒
▲晝間 十二時四十九分
▲月出 十一時十四分
▲月入 零時五十五分
▲滿潮 (仁川)九時四十五分과二十二時五分

▼正に白熱的！大好評 性教育のテキスト 性典
▼人生至上の幸福に陶酔せんとする人は讀め！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合本タダの一圓卅錢 各冊分は四十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一圓廿錢
特別代進呈 無景品 模範日記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一種五圓 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國民中學講義錄
手紙上手は立身出世が早い！
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新案手紙大辭典 一圓廿錢 景品進呈
●定評ある！詳解漢和大辭典！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三圓八十錢をタダの一圓卅錢で大投賣す！
詳解漢和大辭典 千五百頁大冊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局區內西町 振替大阪五壹六貳壹番 合資會社國民書院日報係
▼高級ナイン號萬年筆の大特賣！

中部版

阿片密賣犯逮捕

【仁川】지난삼십일일 오후세시쯤에 부내 미생정(彌生町)부근에서 배회하는 행동이수상한자 나이하엿을 인천서(仁川署)원이 발견하고 부찰하야 취조한결과 원적을 산동성(山東省)에 두고 미생정삽십번지에 거주하는 왕승덕(王乘德)으로 아편을밀매한사실이 판명되엿다 가택수색을한결과 아편이 명공지와 생아편 칠백여그람 아편연(阿片煙)등 다수를 숨겨두엇든것이 발견되엿스므로 공범자도다수 잇는모양이므로 수사중 혐의자 세명을 부찰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不動産賣買零星

躍進京城에暗影

土地一千二百萬圓減 家屋二百卅六萬圓減

比前年同期

自昨年四月至十二月累計

작년십이월동의 경성부내부동산(不動産)매매상황이 최근 경성부세무과에서 조사되엿는데 이것을 작년사월부터 십이월까지의 루계로보면 토지는 륙천칠백삼십이건에 매매되여 그가격이 일천사백칠십삼만륙천구백칠십칠원이고 가옥은 사천이백오십삼건에 륙백칠십칠만일천오백삼십일원에 달하엿다 이를 작년동기와 비교하여보면 토지로는 실로오천이백륙십사건이 감소하야 일천백칠십사만륙천사백칠십구원이나 격감되엿고 가격으로 약팔할이나격감되엿고 가옥은 일천륙백십칠건이 감소되여 그가격으로는 이백삼십륙만륙천사백팔십칠원이 격감되여 약삼할이나 감소되여잇서 그동안 전시긴축경제아래 얼마나 금융이 경색되여 부동산매매흥성이 한산하여젓는가를 말하고잇다

는데토지가이백구십오건에그가격이 사십사만이천팔백사십원이고 가옥은일백오십사건에 그가격이 십삼만구천이백십칠원이다 이것을 전년동기에 비교하여보면 토지는팔백오십륙건이 격감되며 그가격이 이백삼십구만일천구백팔원의 후정이격감되엿고 가옥도 삼백여십일건에 오십오만칠천배이십륙원이격감되엿다

月尾島觀櫻路에 今年엔露店不許

行商者도營利는取締

【仁川】관광도시인천의 명소인 월미도(月尾島)에는 해마다 꽃철이되면 월미도유원지 꽃나무잇는지대(花樹帶)에는 부내에잇는 음식점이 출장소를내여 그야말로 글자그대로 불야성이엿든데 금년에는지금까지도잇고 보안관계에 만흔영향이잇다하야 음식점영업허가를 하지안키로되엿다하며 파출과자맥주등의 행상만은 종전대로하되 폭리를취할때는 그역시 처벌하겟다한다 종래에 노점가(露店街)를 왕래하든 자동차도 금년은 통행을 폐지하게되엿는데 위반할때는 용서업시 엄벌하리라한다

仁川夜市不許

【仁川】상공도시인천의 첫시험으로 개최되엿든 야시장은작년에 제일회로서 성적이량호하엿는데 금년도그허가원을 인천경찰서(仁川署)에 제출하엿든바지난일에 인천상공회회장(仁川商工會會長)송명기(宋命基)씨에게 불허가통지를하엿다 일반로정상인은 손꼽아기대하든것이중엿다

牛價高騰으로 屠獸頭數減少

三月中의屠場成績

경성도수장의 삼월중의 도살수를보면 소(牛)가 이백사십두로 도야지(豚)가 팔백팔십칠두고 말(馬)은 팔두며 양(羊)은 삽두로서 전부이천구백삼십팔두인데 그가격이십사만륙천삼백삼십원이다 이것을전년동월에 비교하여보면 일백팔십오두가 감소되고 가격으로는일만이천백십이원이 감소되엿다 이것은 그동안 소, 도야지, 말, 양 매매되는것이 적어서 그가격이올라간탓이라고한다

蘇萊祝賀旗行列

【蘇萊】부천군소래면에서도 양제도실시를 축하하는 행사를삼일오전십시에 거행하엿는데 궁성요배(宮城遙拜)국기게양(國旗揭揚)국가합창 황국신민서사제창등으로서 식을진행하여 폐식한후 뒤이어 소래공립심상소학교(蘇萊公立尋常小學校)에서는아동사백여명이 기행렬로 거리를 일주한뒤 만세를부르고 축하하엿다

鍾路署管內에 春季清潔施行

종로경찰서에서는 십일일부터 춘기청결을 실시하기로 되엿다 집내외를 깨끗이함은 물론 하수구와 외봉등은 바케내거러 해에잘소입거를 깨끗이하는외에 특히 배수구(排水口)와 쓰레기통은 파손된데가 잇스면 수선하야두어야된다 그리고 당일 비가오는때에는 그다음날로 미루어 시행하기로 되엿다

▲四月十一日 南大門通 瑞麟町 一―三 仁寺町 鍾路三丁目二―一〇六七―一〇一 樂園町 敦義町 鍾路二丁目三―六六 鍾路三丁目 一―一五 八六―一〇二 貫鐵町 觀水町 授恩町 薰井町 鍾路二丁目一六―八五 一〇三―一八〇

▲四月十二日 八判町 三淸町 花洞町 昭格町 寬勳町 安國町 堅志町 松峴町 勸農町 雲泥町 益善町 臥龍町 苑西町 桂洞町 嘉會町 齋洞町 慶雲町

▲四月十三日 唐珠町 西大門町 一丁目 一―一九 一八七―一二 三七西大門町二丁目內需町一 六一―一〇―二五〇 都染町 瑞麟町九三―一六九 淸進町 一―二 八綜 西大門町一丁目一―二 一二〇―一九光化門通 七七―一二二 鍾路一丁目 三八 六九―九八 中學町 壽松町 司諫町光化門通一―七六 公平町 淸進町 一―二七鍾路一丁目 三九―六九

▲四月十四日 宮井町 新橋町 孝子町 淸雲町 光化門通一 玉仁町 通仁町 樓上町 樓下町 體府町 昌成町 通義町 積善町 內資町 社稷町 弼雲町 內需町七―一〇九

待合室서解產

【永登浦】인천부대화정(仁川府大和町)삼십오번지 정사만(鄭四萬)의처 박영례(朴永禮)는 지난사일 오전 구시반경 남편과함께 그의친정인 시흥군군포면 도사리(始興郡軍浦面道士里)로가다오는도중 영등포역(永登浦驛)에서 인천행기차를 기다리는중 별안간해산(解産)을하야 옥동자를 낫앗는데 마츰 영등포역전 제일의원(第一醫院)산파가 무료로 나와서 해산을 구제하얏다한다

仁川港生鮮收獲

三月中四萬八千圓

大部分은京城開城에供給

【仁川】경기도 어업조합연합회(京畿道漁業組合聯合會)의통계를 보면삼월중이천항의고기잡이성적은사만팔천이백육십이원륙십팔전으로전년삼월에비하면 일만사천오백칠십십원의증가를보엿다그원인은 해동(解凍)된뒤로 만히잡힌까닭이라하며 그가운데서 중요품으로는 조기가수위를 점령하엿다 판매는 대량경성과개성(開城)지방에 전수확의 삼분의이를수송시켯고 남어지는 부내에서소비 되엿다한다

七十餘歲老媼

社會團體에義捐

宿痾全快記念으로

부내의주통(義州通)일정목 일백구십일번지에사는 김영근(金永根)씨의어머니 이한영(李漢英)(七一)노인은 아직도 병상에잇는데 유일에이르러 병이나어짐에 따라 여태까지 안락한생활을하게된것은 전혀 국가사회의 덕택인까닭이라고하면서 소지금 사백오십원을 경성부 사회사업조성회(社會事業助成會)에 백원을 국방헌금으로 백원 애국부인회 분구(愛國婦人會分區)에 오십원식 기부하려고 경성부 사회과에 말하야왓스므로 게원들은 모두 감격하고잇다

蘇萊面植樹祭

【蘇萊】학례의 기념식수(記念植樹)는 삼일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당일에 소래면주최로 오전십일시 면주관리천리에잇는모범림에서 김면장이하 관민유지 삼십여명이 참가하야 성대히 거행하엿다 일동이 식수를 한다음 간단한 여연을베풀고 해산하엿다

素砂公普校는 北尋常小學校로

【素砂】경인선소사 조종리(京仁線素砂朝鍾里)소사공립보통학교는 예정대로 지난 일일부터 소사북심상소학교(素砂北尋常小學校)로 개명하엿다고 한다

遊覽客노리는 不良寫眞師取締

【仁川】인천서(仁川署)보안계에서는 매년봄만되면 월미도(月尾島)유원지에 모이는 상춘객과 유람객의 불상사를발에대한 취체방침을 연구중인데 요사이는 조탕(潮湯)도 개시되지 벌서사오입이지낫스므로 경성과 지방에서 유람객이 월미도를만히차저오는 어들의상대로 백여명의 사진사(寫眞師)들은 지방여객에게 사진을 바히라고 강청하여 선금을어삼원식밧고 손님의 주소성명을 적은뒤에 사진을 보낼기한이지나도 보내지안코 선금만착취하는등 흔은 원판도너치안코 허위로 사진을 박어는체하야 손을노리는일이 각금잇스므로 이천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엄중히 취체하리라한다

和洋食二割引上 五日附로認可

종로일대에 가개를 가진요리업자(料理業者)로써 조직된 종로화양식조합(鍾路和洋食組合)에서는 그동안 식료품 원료의가격폭등으로 현재의정가 대로는 이상더 지탱해나갈수 업다하야 냉면 설렁탕을 위시해 양요리에이르기까지 일할로 인상하도록 의정가인상(引上)을 관할경찰서 인종로서(鍾路署)에 신청중이든바 오일부로 드디어 인가가되엿슴으로 어재로부터 그실시를 보게될터이다

種痘와清潔 鍾路署管內는 七日부터實施

용산경찰서관내에 천연두환자가 발생하엿스므로 시내각경찰서에서는

▲四月七日 和光敎園=觀水町 長沙町 三光幼稚園=鳳翼町 薰井町 授恩町

▲四月八日 빠고다公園前=鍾路二、三丁目 樂園町 敦義町 徽文高普=苑西町 雲泥町 敎育報社=益善町 勸農町 臥龍町 女子高普=慶雲町 桂洞町 鍾路一丁目 公平町 瑞麟署=鍾路一丁目 淸進町一部 南大門通一丁目 中央禮拜堂=貫鐵町 仁寺町 京城女子師範=司諫町 中學町 壽松町 徽文小學=松峴町

▲四月九日 第一高普=昭格町 花洞町 昭格町派出所=三淸町 八判町 寬勳町 堅志町 安國町 嘉會町 齋洞小學=齋洞町 三國아파ー트=樓下町 通義町 社稷公園=內資町 弼雲町 社稷町 宗敎禮拜堂=內需町 唐珠町 都染町 京城保育=光化門通 淸進町 瑞麟町一部 新明小學=樓下町 樓上町

▲四月十一日 淸雲小學=淸雲町 新橋町 孝子町電車終點 孝子町 宮井町

東門管內清潔日割

▲十一日 鍾路四丁目一部 仁義町 禮智町一部 鍾路四丁目一部 鍾路五丁目 禮智町一部 崇仁町 昌信町一部 昌信町一部 鍾路六丁目

▲十二日 惠化町 明倫町一二三 四丁目 東崇町一部 臥龍町一部 蓮池町 苑南町 孝悌町 忠信町 梨花町 蓮建町 東崇町一部

▲十三日 新設町 祭基町 安岩町 鍾岩町 龍頭町 敦岩町 城北町

▲十四日 淸凉里町 典農町 踏十里町 馬場町一區 徽慶町 回基町 里門町 下往十里町 上往十里町 馬場町一區 沙斤町 杏堂町

▲十五日 新堂町四區 新堂町一區 新堂町二三五區 新堂町一部

時局經濟講演

九日高麗會館서

【開城】지나사변발발세력의 물풍세가 지난일일부터 실시됨과 함께 모든 물가는 작구 올르고 잇는터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이에 대하야 세심한주의와 철저한 각오가 필요한 터인데 개성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에서는특히 상업도시개성부를 위하야 이에대한 경제강연을 오는구일밤 오후칠시반 고려회관 강당에서 본보개성지국후원미테 개최키로되엿다 연사는 연희전문학교 교수 박효삼(朴孝三)씨이며 연제는 전시재정경제정책과 국민협력(戰時政經濟政財策과國民協力)이다

永登浦私立校巡訪記 (完)

彰信學院

長老會와絕緣코 昨年부터獨立經營

二十年間功績多大

영등포방면일대에 사립학교가만히잇지마는 그럼사가 오래인곳은창신학원(彰信學院)이 제일일것이다 이미이십여년의긴력사를 가젓스며 십이회의 졸업생을 내엿다 이학원의 소재지는 양평정(楊坪町)으로 당산정(堂山町)에서 서쪽으로 조금나려가면 수수짱록라리의 농가가 집합되여잇는 적은부락이다 비록 경성부내에 편입되여잇지마는이근처는 순전한 농촌이다

어부락에서 제일큰집이 장로교회(長老敎會) 례배당이며 그여페 조선식와가(瓦家)가 죽이창신학원이다 이창신학원과 장로교회례배당파는 서로밀접한 판계를 가지고나려왓다 지금으로부터 여십여년전의 엘이다 미국장로교회에서 어양평정에교회를 설치하게되던뒤 그교회안에잇는 면명순의 발기로 이동리의 어느사사집을 빌어서 야학을 시작하엿다 그것이 여창신학원의 시조이다 그때에 교회를 중하야 조선교육계와 종교사업에 온인(恩人)인『언더우드』씨가 매월에 섭오원의 유지비를 보조하여왓다 그리하여 늙은『언더우드』씨가 죽은뒤에도 그의 아들『언더우드』씨가 부친의 유지를밧드러 계속하여 보조해 왓스나 소화구년도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선교비의 긴축으로 할미야마 어학원에 대한 보조도 오원에 삭감되어 십원씩으로 되엿다

◇

그러든중에 소화십이년 사월에『언더우드』씨가 사백원을 연하고 또 정회(町會)와 교회에서 일천삼백원을 모아내여서 현재의 교사를 신축하는 동시에 종래의 서당(書堂)이든것을 학술강습소로 승격시킨것이라한다 여태까지 교회소속으로 경영해와지마는 작년에 신사불참배문제가 생긴고 또한 시국의 반영등으로 교회와의 사이에알력이 생기게되엿다 그리하야 결국 어학원도 그교회의『교유사언되원측』에 따라 인연이끈치게된것이다 그리고서 새로히 영등포유지 조우원(趙又瑗)씨를 원장으로 마지하야 면목을 일신하게 되엿다 현재 어학원의 재학생은 일백이십명인데 일학년에 팔십오명 이학년에 삼십구명 삼학년에 십이명 사학년에 다섯명이다 교실판계로 김수일(金壽一)조명희(趙明熙)씨 두선생이 복식으로 가르치고잇슨

恩露校舍빌어 鷺靑夜學繼續

대정십사년의 큰수재를 격근뒤로 한강연안의 재민들을대개로향진으로 만히이주하게되엿다 그러하야 로향진은 갑작이큰발전을 보게되엿다 로향진청년회의 사업으로 은로학교(恩露學校)의진흥에 넘전에로청학원(鷺靑學院)이라는 야학교를 창설하엿다 그동안에 신회로 졸업생을 내엿고 현재도이백이십명의 재학생이 공부하고잇다 교수는 그청년회원사이에서 유지가서로 분담하야 하여왓는데 종원(閔鍾源)마종진(馬鍾進)정구봉(丁九鳳)씨등세분의 노력이 크다한다 그러던중 소화십일년도부터 전부은로학교 송정각치(松井角治)씨에게 일임하야은로교직원제씨가 마타서 가라치고잇다 은로학교는 금년부터 공립소학교로 승격되엿스므로 어프로 교실을빌려줄는지 의문이다 아직이에대한 아무준비도 업는터이어서 어학원경영에 대하야 주민일동은 상당한걱정을하고잇다 (사진은창신학원전경)=永登浦支局S記者

總額 二十五萬圓·新春大景品附大特賣!

百補丸한제사면

발재봉틀, 純金時計줄, 향소, 삼칭자개장 백동칠첩반상긔, 자전차등을타게된다

勿失好期! 只今이百補丸服用의最好期

● 大補元氣 補血强壯劑로京鄉各界 貴族名士를爲始하야 滿天下服藥家諸位의 絕大한 賞讚과 愛用을밧고잇는 百補丸은 事實!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突破하고잇슬뿐아니라 百補丸이 天下無敵의 大强壯劑로世界各國에까지 輸出되는것도 오직 그處方이神秘하야 누구에게든지 그効力이卓越하고 뚜렷하게나는까닭입니다

過色 過飲 過勞로因한 早老와虛弱엔 百補丸以上이 다시업습니다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 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한분
▲胃腸이虛弱하고 口味와 食慾이업고 飮食消化가 안되는분
▲神經이衰弱하고 記憶力이減退되는분과 肺가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 肢節腹痛이잇는분
▲過飲過色人, 咳嗽가잇는분, 活氣가업고여위고早老하는분은 卽時 百補丸을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 다完備합니다

●只今百補丸을服用하면 藥効도 잘날뿐아니라 二重으로 大景品을타게됩니다 더욱이 空籤은一口도無하므로 等外賞까지라도 一、二等賞과 對等의價値잇는 珍貴品을 進呈하는 公平한特別式 景品特賣입니다 이런機會에 効力조흔 百補丸을쓰시요

봄철에 百補丸을服用하면 効力이倍勝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精補脾補骨補腎補腦補肺補肝補心腎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 壯陽强精 强筋强骨 延年 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一劑十圓

勿驚! 朝鮮初有의大景品

景品만總額八千九百八十圓

●누구나타는大景品種目

特等	一人	足踏裁縫機(발재봉틀)一臺
一等	二人	純金時計줄(男子用)(和信製品)一組式
二等	五人	黃牛一頭、三層자개장、十八金腕卷時計、高級大型洋服欌、大型鐵製金庫中一品
三等	二十人	自轉車一臺、純白銅七첩飯床器一式、電氣時計(大型掛時用)ラヂオ(四球)中一品
四等	一百五十人	卓上時計、緣付體鏡、毛布(요)、家庭用私設府一式中一品
五等	三百人	洋傘、世界一週萬年筆中一品
等外	全部	栗谷先生、金玉均先生、吉田先生等의眞筆屛風畵一組式

特等으로부터 等外까지全部當選、空籤은一口도無함 等外도 全部珍貴賞品

特賣規定
▲百補丸 一劑注文하시면 景品券一枚式
三劑共同注文하시면 謝禮品一劑外에 無料添呈하는 景品券八枚를 또進呈합니다
定價五圓마다 景品券一枚式의比例

特賣期間 自三月一日 至五月末日

當選發表 七月五日後本紙上에發表함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一劑七圓

부인자궁병 냉병 경도부조 대하증에 婦人百補丸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ノ一
電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

現代朝鮮文學全集

第二回配本 詩歌集은出版數日에遂賣盡!! 再版出來!! 人氣衝天!!

四六版크로쓰豪華洋裝
定價一圓二十錢 書留送料二十二錢
一時拂七圓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滿天下의熱狂的歡迎裡에『詩歌集』再版出來! 方今大發賣中

우숨띈海棠花 厄運이전혀업다

(7) 金素英

봄! 봄! 거리 거리에 봄의가벼여운 스텝이 새로운 춘장(春裝)으로 더부러 차려하다。

그러나 옛날 도화동(桃花洞)사는 심청(沈淸)이는 꼿피는 봄철에도 눈먼아버지를 위하야 다떠러진 행주치마에다가 밥그릇을 어더 정성으로 아버지를 봉양(奉養)하엿다。 열녀춘향(烈女春香)으로 더부러 효녀심청(孝女沈淸)이는 조선의 가지분한뿐아니라 윤리、인정에잇서서 영원히 빗날 망변이다 어 유명한 이야기를 소설로 연극으로 아는 어가 만치만 다시 영화(映畫)로 심청전(沈淸傳)을 백어라할때 어만고(萬古)의효녀를 마를사람은 그러케 자죽 길이 업섯다 그러나 드디어 행운(幸運)의 선택(選擇)은 우리에게 어효녀(孝女)를 적지햇으니 그가 김소영양(金素英孃) 언것은 누구나 다아는 일이라 설로 오늘의 심청이니 정양은 어떤人자를 타고낫는가? 송암선생(松岩先生)을 차저드니 노안(老顔)에 홍조(紅潮)를 띄여며 반겨 상을 보시는것이다

×

『괜찬다!』이게첫말이다 『눈여잘생겻다 財産도 팬찬코 性味도 이뻐고…』파연 만고(萬古)의 효녀(孝女)상이 어려치안홀수잇으랴? 천정(天庭)이 뮤타하니 이십전후에 일홍흥할려고 안광(眼光)에 또랑또랑하고 광채가 맑음이 저지하다 마음이 온후하여 능소능대(能小能大)하야 조화무궁(造化無窮)이라 할 도시재간을 가젓고나。

언어 활짝 얼색에 변햇(貧寒)한일이 점마르려울것이오 코가현담(懸膽)과가트니 금옥(金玉)이 만당(滿堂)하고 창고엔 오곡이 드리차리로다

×

재앙(財官)은 어떠한고? 전주(田珠)다섯근(斤)이 생긴다니 무한갑(無限甲)을두리리라 보궁(夫宮)은 어떠한고? 머리가적고 코가 나저 종히(寵姬)가 될상싶다 원래얼골에 애교(愛嬌)가 넘처 우슴을품고 이야기가 쏘다지니 그를애끼는이 또한 업지안흐리라

재궁(子宮)은 좀 부족하다 인중이 얼리서 아들이잇서서 영생을 조신(?)하리라

×

일생은 어떠한고? 여심오 어신면에 남북(南北)에서귀인(貴人)이 엇스리니 이때 열지팔라 삼십사、오에서사십까지 칠년간 대창(大昌)할운이니 전야폭야 (?耶)에 안비막개(眼鼻莫開)하리로다 사십사、오에서 오십까지 대흥(大興)할수로구나 아에 초년고생과 오복(五福)이 구존(具存)한것을 한식하지팔라 오복무엇보다 일생에 액운(厄運)이업스니 대행대행(大幸)이로다

×

귀여움밧고 액운이업고 재물이만코 어만하면 세상서말하는 상팔자(上八字)에 풀엇다 그러나 겸손하고 무지런하야 양의재질을 더한층빗내게해야하리니 우리는 어엽분 양의성공을빌며 다시 은막(銀幕)에 나타나는날을 만천하독자(滿天下讀者)와 더부러 함께심축(心祝)한다

演藝娛樂

世界的名監督 『르네、클레-르』 突然東洋來訪說 "알벨、프레"쟝과同伴하야

『파리(巴里)의지붕밋』에서부터 『파리제(巴里祭)』『최후의억만장자(最後の億萬長者)』와 『유령(幽靈)은東으로간다』등의 영화의고전(映畫의古典)에 속할작품을 감독한 『르네·클레-르』가 이번 동양(東洋)을방문하게되리라고한다

양화수입(洋畫輸入)이 문제되는오늘 『클레-르』와가튼 명감독(名監督)이 내방한다는것은 실로 감개무량한일이다

그리고『파리의지붕밋』에서 『알베-르·프레쟝』역으로 또는 요전 경성(京城)서도 상연된『연애교차점(戀愛交叉點)』에서 『다니엘·다류-』와함께주연한 『알베-르·프레쟝』도 『클레-르』감독과 함께 오게되리라고한다

여소식이 전하야지기는 이번일본내지(日本內地)로온 『파랏주』기사(技師)가 『아이누』기록영화가 꼿나는대로 이번은 일본영화사(日本映畫社)와 『타이엎』하야가지고 조건이 충분하게 되는날이면 『클레-르』와 『프레쟝』을 초빙(招聘)하야 어번은 기록영화가아니요 본격적(本格的)인 영화를제작하는데 『프레쟝』을주연으로하고일본배우(日本俳優)를 공연(共演)식히여 국제영화(國際映畫)를제작(製作)하리라고한다

지난번 『팡크』박사를 초빙하야 『새로운大地』를 제작한 일본영화계(日本映畫界)가 이번 어계획에대하야 어떠한태도를 취하게될는지실로 관심(關心)과주목(注目)의 초점(焦點)이되지안흘수업다

『클레-르』의 동양내방(東洋來訪)에대해서는 사년전 내무성아국(內務省映畫局)에서 『클레-르』를 초빙하야 일본독특한 문화영화를 제작하려다가 드디여 어목적을 일우지못햇든바 과연 어번 어계획은 어찌나될런지 자못흥미잇는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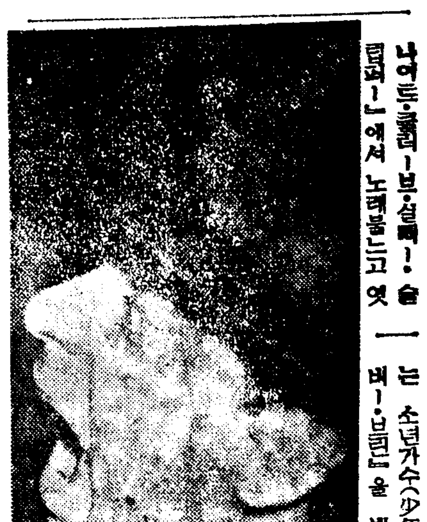
더욱 최근정세와가티 불란서영화가 정치적문제로 연하야 지난번은 위대한환영『偉大な幻影』이 반전사상(反戰思想)의혐의와 방공동맹국(防共同盟國)인『독일』에대한 우의(友誼)때문에 상영금지를당햇는데 파연 예술가『클레-르』는이러한 정치적의미나 민족적감정을 초월하야 실로 영화인의 기대에 어그러지지안는 작품을 맹글런지 비상시국인 오늘에시주목되지안흘수업다

上네·클레-르 下프레쟝

河馬의입이 "다-빈"과"보비-"를?

『헐리웃드』에서 대표적회극배우(喜劇俳優)로 친다면 『키-톤』이나『브라운』이 엇지만 또한『에듸·칸타-』를 빼노흘수업다 어『칸타-』는 또한 명소년소녀가수(名少年少女歌手)를 발견하는데는 천재적수완(天才的手腕)을 가지고잇다

지금 양화계(洋畫界)의 선언기(全人氣)를 치보주하고잇는 『오-케스트라의少女』에 주연하는 『듸아나·다-빈』의 처음 『라듸오』의 『마여크』아페서 노래불으게하는 알선(斡旋)을 해주것도이 『카타-』였고 또 『뉴-욕』의 『나이트·클럽-보-설빼!』술집 『……』에서 노래불느고 잇든 소년가수(少年歌手)『보비-·브린』을 발견하야 영화계(映畫界)에 나오게한것도 『에듸·칸타-』다 그러나 서로 제각각 영화에 출연하기때문에 좀체로 자주맛날수업서 『카타-』는 휴가(休暇)를 이용해서 함께 려행(旅行)갈 약속을『다-빈』과 에노코 너무 기뻐서 엇어 어러케 떠버려졋다。 잘못보면 하마(河馬)의 얼어아닌가 의심나게되엿다



사진上은『다-빈』中은『에듸·칸타-』下는『보베-』

墺太利의 『베스트·텐』

『오-스트리』(墺太利)영화계는 一年에 약三四十본제작되는데 거기서 봉절되는 구미영화(歐米映畫)중에서작년의『베스트·텐』을선발(選拔)햇는데 그일홈은 다음과갓다

一、월리암·포-엘
二、그레타·가르보
三、에밀·야닝스
四、폰·크로푸-드
五、사샤·기트리
六、파울라·베세리
七、쿨나-크·게-불
八、『진저-로쟈스』와『아스테어』
九、포올·무니
一〇、마룰레느·듸드리히

여기서한가지 놀라운것은 불란서의『사샤·기트리』의인기다

世界各國의 厚生運動 그目的과指導方法

厚生運動이라하은 保健、品性、陶冶、또는經濟等에 置重하야생각한것으로서 國民에게適當한 餘暇善用의 方法을講究하는同時에 이것으로因하야 國民의 德性과 體位의向上을 圖謀하야 幸福을누리는 理想的國民生活樣式을주기위한 一種의運動이다 이것은 國民體育의 運動인同時에 文化運動이며、社會敎育、生活改善의運動이며 또는國民和樂의 運動이라고도할수잇다

世界大戰後 돗밧게 各國의厚生運動은 더욱 旺盛하바잇서서 支那에서까지도 蔣介石의 所謂新生運動에도 包含되여 잇는데 어제 各國의 特色을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米國】米國에서는『리크레-숀』運動으로서 目標를 健全한야메리카市民의 養成에 置重하야『내쇼낼·리크레-숀協會』가 中心이되여 運動競技와 여러가지 團體慰樂事業에 關한指導者의 訓練을 行하고잇다 世界大戰中 YMCA로부터 派遣된『엘우드·부라운』이 戰線에서 組織한 競技運動은 士氣를鼓舞하는데 效果가잇서成功을거두엇스나 銃後의 國內에서도戰禾의 重壓에依하야 緊張할生活을 適當한 리크레-숀을 주는것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야 厚生運動이 普及되여 오늘의 發達을 보게된것이다

【英國】英國은 古代로부터 스포-츠나라로 일직이 알려저 잇스나 産業革命의 悲慘한經驗下에 가장 빨리 戶外運動의 必要에 눈뜨게되엿다 『나폴레온』을 大敗케하고 英帝國興業의 基礎를 세운 『웰링톤』公이『워터-로-의戰勝은『어-톤』의 運動場으로말미아머엇다』라고 말한것은 너무도有名한 말이다 現在人口一千에對하야 一個의 運動場을目標로建設하고 勞働者의運動場에는 政府가補助를주고잇다 鑛山勞働者를위하야서는 一九二○年坑夫福利基金制度를設置하야 運動에도 浴場、水泳場、保養場等을完備하엿다 其厚生運動은 强健하고 耐久力을 가젓고 그리고完全한調和的인 人格의 國民을涵養함을目的하고잇다

【伊太利】伊太利의 厚生運動은『勞働의後』Dopo Lavoro라고부른다 『무솔리니-』의말에依하면 그동은『同胞와 사랑과 文明과의 最高의使命을 遂行하는 平和事業이다』其活動은 體育스포-츠의 奬勵以外에 藝術趣味의 敎育、職業訓練、社會的擁護等에 亘하야엇다 今年六月에는 羅馬에 世界更生會議가 開催될려하여서『드레라보로』의 全貌를보는가장 조혼機會로 日本의參加를希望하는바이다

【獨逸】獨逸의 厚生運動은所謂勞力行團을 中心으로 行하고잇다 『게멜』實傳相의 말에 依하면『國家의 安定은武器에잇는것이아니며 國民의心身에잇다 獨逸最强의 支柱는 國民의 幸福에存在하다』는것이다 勞働者들로하야금意義잇는生活을하도록여기에 文化的價値를주어서 勞働의歡喜 勞働의자랑을 回復하야 勞働의魂을 更生시키고저 努力하고잇다『힛틀러-』는『勞働者에게 適當한休暇를주고싶다 어休暇와餘暇를 眞正한休暇로하기위해서 온갓施設을하다 其理由는 余가鋼鐵과가튼强烈한 神經의 國民을要하는까닭이며 어와가튼國民이야만큰事業을 할수잇는까닭이다』라고 말하엿다。 獨逸의勞働者는只今은『勞働貴族』어라고 부르며 一九四○年의東京올림픽에는 勤勞力行團專屬의 巨船觀光에分乘하여者가 日本에올것이라고한다

【佛國】佛國에서는 一九三六年 『레오·라그렌』이 人民戰線內閣을 組閣함과 同時에 『餘暇스포-츠省』을 設置하엿다 佛國國民의 均整을어든 心身의 發達과 四十時間法이라든지 有給休暇法의 發布에 依하야생긴 餘暇의 利用을 그릇(誤)하지안토록 指導하고저함에잇다 그리하야 一九三六年冬期로부터 急激하게 스키-가 盛況하야진것은 明確히 그影響이라한다 勞働者使用人과 其家族을 위하야서는 四割引의 鐵道賃金을하고잇스며 各地에는『靑年의宿所』이라는 設備가 잇서서 主로戶外運動에 利用되고 잇다 또스포-츠技能證明書制度를 創設하야 走行、飛躍、投擲、水泳等의 四種目에對하야 試驗을 行하야 均整發達을 證明하는 體育證을 交付하기로되엿다

巨人·阪急職業野球 九·十兩日間擧行

京城日報社招聘의 東西職業野球界의 巨人軍과 阪急軍은 來九、十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다음과가튼 日程아래 對戰하기로 되엿다는데 當日의觀覽料는 녯錢이라한다 一般 一圓 學生五十錢

▲九日(土)午後四時=巨人對阪急(第一回戰)
▲十日(日)午後一時=阪急對巨人(第二回戰)
同第二次終了卅分後=巨人對阪急(第三回戰)

劍牛보-트레-스 牛津大學連勝

【倫敦二日發同盟】第九十回劍橋大學對牛津大學『보-트레-스』는 二日英國倫敦『템스』河下流『푸트니-모-트레-크』의 四哩四分之一『코-스』에서 擧行되엿는데 어날은 早朝부터 南西風이 조금하엿스나 快晴의良好한『컨디숀』이엿다 兩軍은午後一時五十九分에『스타-트』한 바 牛津大學은 最初부터 好調를보이여『리-드』하자 劍橋大學軍의 追及熾烈하야 一時는劍橋軍이 優勢를보이드니 其後에 劍橋大學軍의『스트록』이不振하야 牛津大學軍에게 또다시 떠러저 結局二艇身의差로서 牛津大學軍이 再勝하엿는데所要時間은十九分三十秒라고한다

올림픽準備資料提供

伊太利使節團中의 伊太利聯盟代表『뽀-조·뽀지』博士는 組織委員會에對하야 올림픽準備狀況의詳細한 說明을 聽取하겟다고 依賴하고잇든바 組織委員會에서는來十六日午前十時부터 帝國호텔에서 올림픽準備關係者를 招集하고『뽀지』博士에게 詳細한 準備資料를 提供하기로되엿다한다

普及革新五週年·朝鮮日報西部販賣所設置十五週年記念

絢爛! 東方大衆演藝의萬華鏡

日·滿·露代表的明星六十餘名大動員

맑은색가에 白鳥가 잠드럿고 하늘엔 별이꿈이야기하는밤 노래와춤의 큰잔채가 열린다

全東洋歌舞大會

四月十一、十二、十三日 每夜七時半

◇名妓名唱의歌謠와舞踊
◇滿洲國唱戲 神話舞劇『天女散花』 史劇『虹霓關』
◇露西亞 엣세트리 레뷰-團一行

主催 朝鮮日報西部東部兩販賣所

後援 朝鮮日報事業部

指定席二圓·一般一圓半 本報讀者에게는五十錢減

府民館에서

라디오

七日(木曜)

◇正午(東) 時報 行進曲(레코-드)
◇午後一時一五分 婦人講座 家計簿(四)『生活費이야기』 梨專 金東珠
◇同六時 幼年劇『꼿밧』 安國幼稚園兒童 指揮 趙錦子
◇同六時三○分 經典解說『寶社會의새일군들에게』 神父 吳基先
◇同七時三○分 講演(京城)『花祭에對하야』 中專 金敬注
◇同七時三○分 講演(平壤)『花祭를當하야』 鄭昌允
◇同八時 新作漫談(京城)『봄은古木에도』 李愚興
◇同八時 라디오드라마(平壤)『아름다운밤』一景-킨레-르宛
弟原作 配役 동파큐드…李義昌 카툴로스…沈淸睽 엘레-나…金敬植
◇同八時四○分(東) 合唱 마태受難樂 빠하作曲 樂浪라디오드라마俱樂部 大日本聯合合唱團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萬古江山 二、唱劇調 沈淸歌中 鼓手 丁元燮 李東伯

第一放送
◇午後六時(札) 童話劇
◇同六時二五分 講演(城)
◇同七時四○分(東) 講演
◇同八時(東) 謠曲
◇同八時四○分(東) 合唱
◇同九時(大) 物語

八日(金曜)

◇午前一○時 入學試驗合格者發表—中央佛專
◇正午(東) 時報 (東) 佛敎音樂 佛敎音樂協會聲歌隊 指揮 橋本 秀次 獨唱 高木 淸 피아노伴奏 渡邊 千鶴
◇午後○時三○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婦人講座 家計簿(五) 梨專 金東珠
◇同六時 어야기『봇치님』 李存光
◇同六時三○分 講演『봄철과昆虫』 大阪生物學敎室 趙福成
◇同七時三○分 梵唄 擧佛、召請偈、由致、請詞、歌詠、獻座偈、茶偈、眞言勸供 開運寺僧侶
◇同八時 어야기『灌佛節』 中央佛專 朴允進
◇同八時三○分 라디오드라마『布施太子』三幕—金泰治作 明星劇團 演出 任尼宰
◇同九時 經濟解說 高永煥

第一放送
◇正午(東) 佛敎音樂
◇同六時 童話劇(京城)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分(東) 歌謠
◇同七時四○分(鋼) 俚謠
◇同八時(東) 管絃樂
◇同八時三○分(大) 物語
◇同九時(東) 時事解說

九日(土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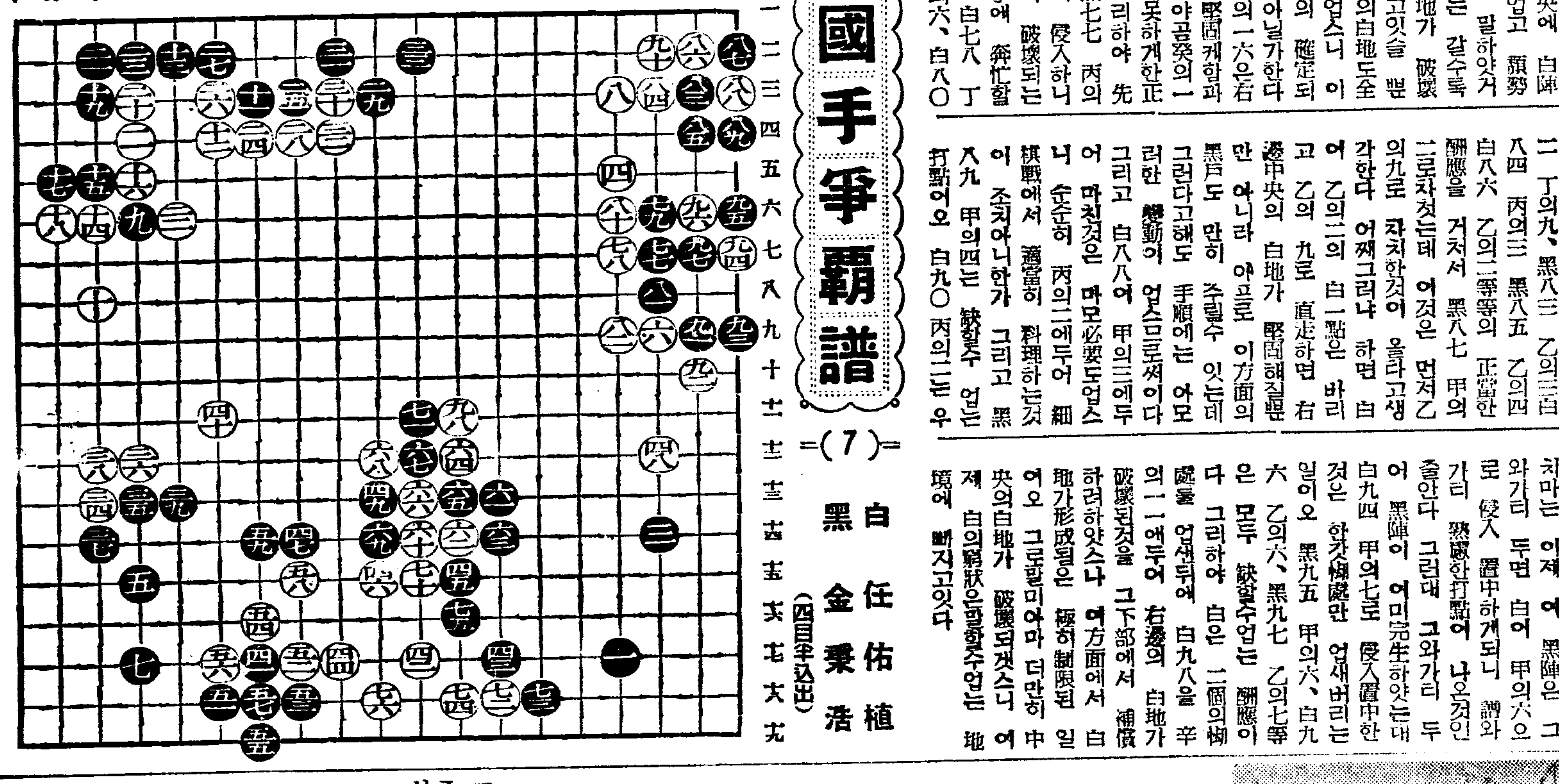
◇正午(東) 時報
(東) 土曜코-너-三(第十七回) 一、圓舞曲『위-ㄴ氣質』요한 슈트라우스作曲 二、위-ㄴ民謠 슈람-크作曲 三、行進曲『勝利의맛』간드作曲 東京放送管絃樂團 指揮 ……
◇午後一時一五分 婦人講座 家計簿(六)『決算과家計簿』 金東珠
◇同二時 三○分 春季競馬實況(國語)京城新設町競馬場으로부터 中繼
◇同六時 唱歌와童謠 一、齊唱 人形(國語) 二、練兵(國語) 三、애기각시 四、笛과太鼓(國語) 男五、獨唱돈-비(國語)…… 六、齊唱チューリップ(國語) 七、봄비 八、獨唱五一ちいさん(國語)…… 九、齊唱ブランコ(國語) 十、ひばり(國語) 十一、할미꼿 十二、종달새 協成普通小學校兒童 伴奏 李善信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趣味講演『野外生活에對하야』 吉鎭燮
◇同七時三○分 講演『李舜臣과……』 金亨稷
◇同八時 俗謠 一、도라지打鈴 二、赤手單身 三、靑春歌 四、사발가 …… 趙白鳥
◇同八時三○分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새타령 崔壽成 金準守

第一放送
◇同九時 古談『……』 崔汝成
◇正午(東) 土曜코-너-三
◇午後六時(大) 童話
◇同六時二五分(東) 文化講座
◇同七時三○分(東) 歌謠
◇同七時四○分(東) 講演
◇同八時(東) 物語
◇同八時二○分(東) 드라마
◇同九時(大) 歌謠曲

國手爭覇譜 (7)

本社獨占

白 任佑植
黑 金秉浩
(四目半込出)



辛의十六 癸의十八 丙의十七 丁의七 丙의七 丁의六 丙의六 丁의八 丙의九 乙의三 丙의三 乙의四 乙의二 甲의二 甲의三 丙의四 乙의二 甲의九 甲의十 乙의七 甲의六 乙의六 乙의七 辛의十一
○…死點… ○…粘… 害의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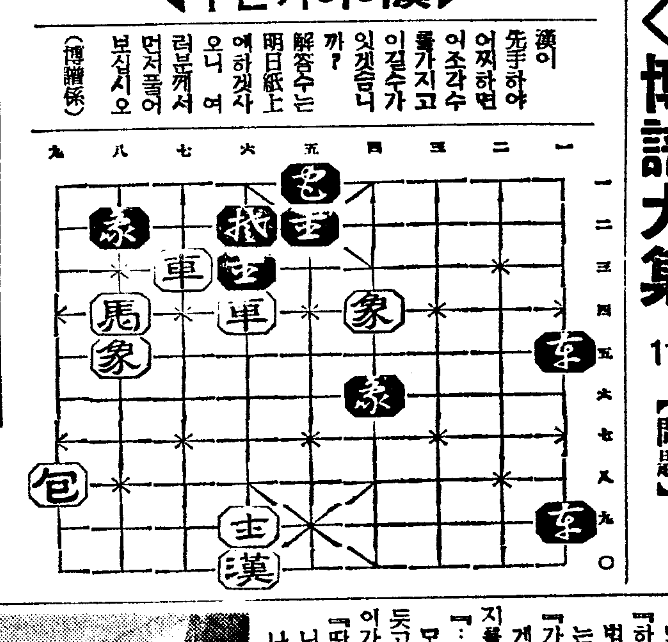
敗北가決定된 白軍의窮狀

前二回에서 白四八의 過誤로말미아마 下邊中央에 白陣이包圍되어 救할수업고 頹勢를 做出한 顚末을 말하얏거니와 이제 그頹勢는 갈수록 擴大되야 中央의白地가 破壞될 危險에 暴露되고잇슬 뿐만아니라 右邊一帶의白地도全혀破壞되지아니할수업스니 이에서 白의敗北은거의 確定되얏다하야도 過言이아닐가한다 그리고 黑七五 辛의一六은右邊下隅의 黑地를 堅固케함과 함께 白七六으로하야곰 癸의一八로 應手치아니치못하게한正當한 打點이오 그리하야 先手를 確保한후 黑七七 丙의七로 右邊의白地에 侵入하니 白은한가지의地盤이 破壞되는것을 보면서 隨手에 奔忙할뿐이다 그리하야 白七八 丁의七、黑七九 丙의六、白八○ 丁의六、黑八一 丙의八、白八二 丁의九、黑八三 乙의三 白八四 丙의三 黑八五 乙의四 白八六 乙의二等等의 正當한應酬를 거처서 黑八七 甲의二로차처는데 어것은 먼저乙의九로 차치한것이 올라고생각한다 어째그러냐 하면 白어 乙의二의 白一點은 바리고 乙의 九로 直走하면 右邊中央의 白地가 堅固해질뿐만 아니라 아프로 이方面의黑戶도 만히 주릴수 잇는데 그러다고해도 手順에는 아모러한 變動이 업스므로써이다 그리고 白八八어 甲의三에두어 마친것은 마모必要도업스니 순순히 丙의二에두어 細棋戰에서 適當히 料理하는것이 조치아니한가 그리고 黑八九 甲의四는 缺陷할수 업는打點어오 白九○ 丙의二는 우에서말한바와가티 乙의九에두엇스면 가른手順으로 보다有利하엿슬것이다 黑九一 乙의九와 白九二 乙의一○은 서로 缺陷할바아니데 黑九三 甲의九는 甲의八에 두는 것이아프로 細棋工作을 爲하야 조치마는 이제 어 黑陣은 그와가티 두면 白어 甲의六으로 侵入 置中하게되니 譯와가티 熱嚴한打點이 나오건인줄안다 그런데 그와가티두어 黑陣이 어미完生하얏는대 白九四 甲의七로 侵入置中한것은 한갓熱嚴만 업새버리는일이오 黑九五 甲의六、白九六 乙의六、黑九七 乙의七等은 모두 缺陷할수업는 酬應이다 그리하야 白은 二個의劫處를 업새두어 白九八을 辛의一一에두어 右邊의 白地가 破壞된것을 그下部에서 補償하려하얏스나 어方面에서地가形成될은 極히 制限된 일여오 그로말미아마 더만히中央의白地가 破壞되겟스니 어제 白의窮狀은말할수업는 地境에 빠지고잇다

◇博譜大集 119 【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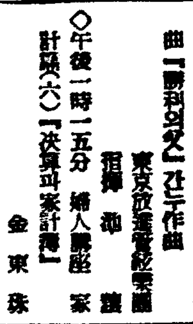
漢이이기는수

漢이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 發表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 보십시오 (博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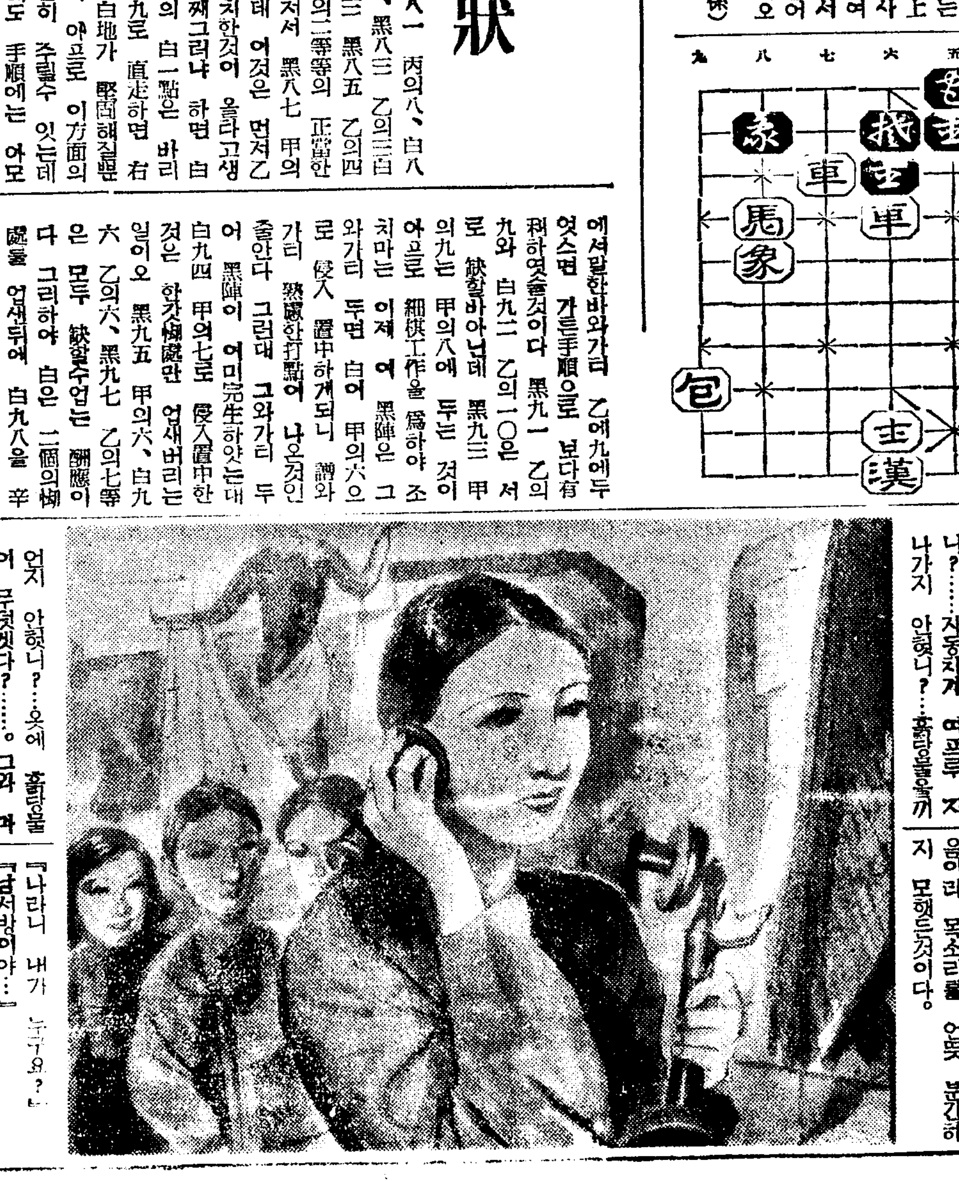


長篇小說 濁流 【170】

蔡萬植作 鄭玄雄畫



彈力잇는『아침』(9)



『여드름바기지 연구……』
『소장변호사 나리가 지시구……』
『하꾸라이』귀공자가 연구……』
『대답 해라!』
『그중 누구냐?』
『아무튼 연애파는 연애파 갈데 업지?』

오꼼이와 죽은깨와 단발쟁이가 서루가봄 계봉이를 말 대답도 못하게 모라대든것이다

『여드름바아지가 온줄두 허마올 시간인데……』
『소장변호사 나리게서는 그새 또 면장이나 왓뎃?』
『하하 편지 첫끄테다가 연애법 재먼조(戀愛法第×條)라구는 안썻뎃?』
『가만잇서 내말 드러…』

계봉이가 겨우 손울드러 제지를 시켜놋는다。

『…나는 괴혜자야 괴혜자…』

모두 무슨 소린지 못 알어듯고 뚜렷뚜렷하고 엿다 계봉이가 다시 말끄를 엿댄다。

『땅 진날 박게 나오지 어뎌니?……자동차가 여프루 지나가지 안혓니?……흙탕물을 끼언지 안혓니?…옷에 흙탕물이 무덧겟다?……。 그와 마찬가지루 여드름빼가지나 변호사나리나『하꾸라이』귀공자나 그축들이 어써구 어써구해서내가 제군들한테 연애파 다구소상을 밧는것두 그러고 혜란 말이야……。 나는 아무 상관두 업는데 자동차가 흙탕물을 끼어저서 옷을 버리듯끼……。 그게 모두 여드름바가지니변호사니 『하꾸라이』 귀공자니 하는것들에 무어나 하면은、땅신날 남의 새옷에다가 흙탕물을 끼언고 다라나는『처벌할수업는』깽들이란말야、그러니깐 제군들두 조심을해! 잘못하면 약간 흙탕물이 아니라、바루 바퀴에 치어서 죽거나 병신이 되지나 하기 쉬우니깐… 아러드러? 아는사람 손 드럿!』

계봉이 저까지해서 모두 재그르르 웃는다。 한참들 웃는다。 주임도 무어라고 간섭을 엇고 서 히죽히죽 웃는다。

『그럼 대체 너는 무엇이냐? 말을 그러케 능청맞게 잘하니 약장수냐?』
『구세군 전도빤?』
『활동사진 변사…』
『나? 나는 보시 행동파……서다 행동파(行動派)……』
『행동파라니?』

계봉이의 말에 죽은깨가 먼접 따짓고 나선다。

『행동파 몰라? 사람이 행동하는거 몰라? 소설은 만히 읽어서 현대적인체 하면서두』

『나라니 내가 누구요?……』
『남서방이야……』
『어어머니……? 나는 누구란다구!』

계봉이는 깔깍 반가워서 주먹을 끄리잔코 바싹을한다 동뒤에서는 오꼼이 죽은깨 단발쟁이 가 서루 처어다보고 웃으면서 눈짓을한다。

『…언제 왓수?』
『오기는 그저게 아침에 왓는데…』
『그리구서 입때 시침을 뚝 따구 잇섯서? 예 원!』
『미안하우 좀 어수선해서……그런데 내가, 그러루 차저가두 조켓지만…』
『아니야 내가 가께……어디? 아현(阿峴)?』
『응 저어…』

승재는 마포 나가는 전차를 타고 오다가 아현고개 정류장에서 내려서 섯께 나가는 길로 한참 오는라면 빨간벽돌 여프로 낡은 어칭집어잇고『어린빈의원』어라는 간판이 부텃다고 노순을 자상하게 가르처준다。

여섯시 반이나 일곱시 까지 대가마고 하고서 전화를 끈고 돌아서는데 마침 대기하고 섯든 세 동무가 일제히 공격을 한다。

『도하나 생겨주나?』
『누구나?』
『그건 자동차 아니냐? 흙탕물 끼엇는……』

마지막의 단발쟁이의 그말에 모두 자즈러지게 웃고 계봉이도 가치서 웃는다。

『경칭하구나!』
『아 어떠 그럼 누구는 행동을 안하셔서 밤낫 우둑허니 언젓기만 한다든가?』
『이사람, 행동이라니깐 머, 밥 먹구『따블유 씨』다니구 하품하구 그런 행동인줄루 아나?』
『그럼 그건 행동아니구 저블 어드냐?』
『그러건 개나 도야지나 그런 짐생들두 할줄 안다네』

마침 주임이 계봉이의 전화를 바더서 넘겨준다。 계봉이는 전화통에 엽을 대면서 바루 『여보?』한다。

어쩌다가 형 초봉이자 전화를 거든 외에는 통히 전화라고 오는데가 업거니 때문에 계봉이는 언제고 그러덧거이다。 그런데 오늘은 또 바게 『나요 나…』 하면서 우렁우렁한 사내의 음성이 들렷다。 승재가 전화를 걸던 것인데 계봉이는 승재와는 전화가 처음이라 목소리를 언뜻 분간하지 못햇든것이다。